

100만 촛불...코너에 몰린 대통령

朴, 15~16일 검찰 대면조사
이주안 3차 대국민담화 예상
2선 후퇴 등 입장 표명 관심
추미애, 긴급 영수회담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취 문제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거세지는 하야·탄핵 압박과 ‘100만 촛불집회’로 증명된 엄중한 민심에 이제는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가 된 것이다. ▶관련기사 2·3·4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격 제안한 ‘영수회담’에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추 대표가 담판 성격의 긴급회담을 요

청한 만큼 정국 해법 마련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4일 추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 박 대통령과 양자 회동 형식의 긴급회담을 하자”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회담 제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여러 형식이 있을 텐데 청와대가 여야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했으니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여야 3당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영수회담을 요청해놓은 상

황에서 민주당 추 대표와의 단독 회담 형식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8일 ‘국회 추천 총리’ 제안 이후 이날까지 6일째 별다른 수습책을 내놓고 앉고 있다. 3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주말에 이어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도 향후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속의 중이다. 100만 촛불집회로 성난 민심이 표출된 데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검찰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어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좁을 대로 좁아진 상태다.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하야나 조기 대선 요구를 바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내 탈당과 함께 국회 추천 총리에 관한 이양 등을 포함하는 ‘2선 후퇴’ 의견을 공식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담화를 할 가능성에 대해 “모든 사안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에 대해 다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추 대표가 요구한 양자회담을 청와대가 받아들여 대화에 나설 경우 정국 해법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 2선 후퇴라는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영수회담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입장을 전환해 양자회담을 역제안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웅진 檢수사 이어 고강도 세무조사

그룹재건 나선 윤석금 회장 암초에
두 아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시거래

그룹 재건을 위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에 이어 또 다른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다. 1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 충무로에 소재한 웅진홀딩스(현 ㈜웅진)에 파견, 내년 초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0년 4월 이후 만 6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윤 회장의 두 아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에 재판에 넘겨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윤 회장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했다’는 금융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윤 회장의 두 아들이 경영진의 지위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2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웅진그룹은 2012년 10월 법정관리로 인한 채무 1조4384억 원의 80% 가량을 코웨이와 웅진식품 등 주력 계열사를 팔아 갚고, 2014년 2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6년이나 빨리 채무(1조4384억 원)의 98%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검찰 출두하는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 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된다

금감원·여신협화·카드사 첫 TF회의
모범규준 4년 만에 개정 의견 공유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 TF’가 열렸다. 회의에는 카드사들을 비롯해 금감원, 여신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 의견을 금감원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여신협회가 카드사들과 신용카드 발급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해왔지만, 금감원과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사들은 2012년 10월 제정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의 기준대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발급 대상자는 △월 가처분소득 50만 원 이상·개인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 이내 △신용카드평점 기준(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 등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용 한도액은 개인신용등급 1~6등급

의 경우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 등이 적용된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발급기준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이용한도액 산출 기준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모범규준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난 만큼 현재 상황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제고도 카드 발급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갈수록 악화하는 수익성과 반대로 연체율은 양호한 만큼 신용카드 발급을 지금보다 확대하면 공격적 영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끝까지 지지한 프리버스, 트럼프 초대 비서실장에 배년 수석전략가에...인수위 가족·로비스트·거액 후원자 포함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의 핵심인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에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낙선했다고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기사 12면 프리버스는 공화당 주류 진영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등을 돌릴 때 끝까지 지지한 인물이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

선 후보로 선출된 데에도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연설에서도 프리버스의 공헌을 지켜세웠다.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 프리버스 위원장과 경쟁을 벌였던 스티브 배넌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수석 고문으로 임명됐다. 배넌은 대선 때 트럼프 캠프에서 최고경영자(CEO)로 뛰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된 라인스 프리버스(왼쪽)와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수석 고문으로 임명된 스티브 배넌. AFP연합뉴스

우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뉴스의 공동 설립자로 트럼프 못지

않은 막말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는 트럼프의 딸, 사위, 아들 등 가족이 기용되고, 로비스트와 거액의 후원자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큰딸 이방카와 그의 남편 제러드 쿠시너, 큰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 등을 인수위 집행위원회에 포함했다. 또한 에너지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둔 로비스트 마이클 카탄자로, 미국음료협회(ABA)의 로비스트 마이클 토레이 등이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엘시티 부실대출...떨고 있는 금융권 13개 금융사 8000억 PF대출 약정

부산은행 3000억 가장 많아
메리츠 1500억·흥국생명 300억
은행·증권·보험사 대거 포함

‘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엘시티 비리’ 의혹이 금융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무엇보다 엘시티 비리 의혹의 몸통인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최 씨와 친목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3개 금융회사가 엘시티 개발에 8000억 원 규모의 PF 한도대출 약정을 맺고 있다. 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9월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3000억 원 수준으로 가장 많다. 이어 메리츠증권증권, 현대증권이 각각 1500억 원대의 대출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흥국생명, 롯데손해보험이 각각 300억 원대의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시티 개발과정에서 쓰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대거 연루된 것이다. 검찰의 엘시티 비리 수사의 핵심은 이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500억 원대의 비자금에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잠적했던 이 회장이 2개월 만에 체포돼 구속되면서 김

철의 엘시티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특히 대출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과 강원도 평창 땅 등을 담보로 KB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3억 원대의 특혜 대출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더불어 최 씨 조카가 베트남 고급 유치원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A 은행이 유령법인을 세워 편법 투자하도록 도운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금융사들은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엘시티) 분양이 잘되고 있고 시공사인 포스코와 책임준공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금 회수에) 문제없을 것”이라면서 “대출 결정 과정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미포지구 6만5000㎡에 101층 규모로 건설 중인 호화 빌딩이다. 공동주택, 호텔, 쇼핑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이다. 총 사업비는 2조7000억 원에 달한다. 정효진·김경아·박규준·정수현 기자 js62@

알립니다

올해의마켓리더大賞

자본시장 선도한 주인공 찾습니다

올해의
마켓리더
大賞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올해 자본시장을 선도한 마켓 리더를 선정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올해의 마켓리더大賞’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이바지한 업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마켓 리더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회사의 발전을 넘어 국력 신장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이끈 마켓 리더들의 노력을 부각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 업계의 발전과 건전한 투자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 주최 : 경제신문 이투데이

■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FNG이드

■ 시상부문 : 종합대상, 자산관리부문 우수상, IB부문 우수상, 리서치부문 우수상 등

■ 접수마감 : 2016년 11월 23일(수) (부문별 수시마감)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2016년 12월 8일(목)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 접수 및 문의 : 마켓리더대상 사무국 전화 (02)799-2688 / 팩스 (02)799-2666

비즈&비즈

▶ 20-21

그랜저 IG ‘왕의 귀환’

하성용 사장 ▶8 최원원 회장 ▶14

스페셜 ▶18

KCC

기업 지배구조191 KCC그룹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朴 대통령이 연결고리?... 최순실-안종범 공모관계 규명 주력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검찰수사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빼놓고는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의 강제모금 혐의 공모 관계 설명이 어렵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16일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협조할 것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지 9일 만이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적용 혐의는 = 검찰은 우선 대통령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관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대기업 출연금을 뇌물로 보기보다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직권 남용으로 범죄 혐의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수사팀은 대기업들이 낸 출연금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구체적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리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게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서를 넘겨준 것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씨에게 각종 청와대 문서가 담긴 태블릿PC가 전달된 경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공소장에 박 대통령 거론될까 초미 관심 =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는 것은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와도 맞물려 있을

박 빼고선 강제모금 관계 설명 어려워 15~16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결정
崔씨→安 전 수석 의사전달 과정 조사
범죄가담 사실 드러나면 탄핵소추사유

가능성이 높다. 최 씨 구속기간이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19일께 최 씨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공모 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 전 수석이 최 씨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둘의 관계를 직접 연결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안 전 수석은 구속 직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재원 모금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라고 밝혔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하면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재단 설립과 모금을 제안하고, 대통령이 다시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하는 구도가 그려진다. 수사팀 관계자도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의사전달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하더라도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소추받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검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최영길 기자 jyg97@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선 후퇴·탄핵·하야... '질서있는 퇴진론' 부상

100만 촛불 민심이 확인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난하게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탄핵 주장을 주저해 온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를 중심으로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상 '퇴진'에 가까운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정지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두고 하야·탄핵 외에 2선 후퇴 등 다양한 해법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야의 경우 말 그대로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 68조에 따라 사퇴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은 국회의 소추에 의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제도다. 헌법 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이 발의해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그러나 최종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기 때문에 정권 이양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현재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180일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탄핵 결정은 현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은 하야나 탄핵과 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가장 현실성이 높은 방안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로 하여금 모든 권한을 이양해 국정을 수습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내치는 물론 외교·국방 등 국가원수의 권한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헌'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임의 뜻을 발표한 뒤 과도내각을 수립해 적당한 시점에 퇴진하는 시나리오다.

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 제안한 것처럼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책임총리제'로 내치를 통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규모 시위와 퇴진 촉구 운동 등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정국혼란과 국정 마비 등의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의중 기자 zerg@

역대 대통령 조사 유사사례는

노무현,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 이명박, 당선인 신분 'BBK 사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정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첫 불명예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은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적이 없었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검찰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불러 10시간 이상 조사를 벌였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다. 이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됐고, 이후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대통령 사이의 혐의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

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BBK 사건'으로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선인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파내사자로 3시간가량 방문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말이었던 2012년 11월 '내국동 사저 부지 매입'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도 직접 조사가 아닌 서면 질의서를 받고 하루 만

에 답변서를 보내는 식으로 특검 수사에 응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퇴임 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대기업 총수 등 40여 명으로부터 410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두 차례 소환된 뒤 구속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평범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견 000인 3년의 혁신, 3백만 개 30년의 성장

檢, 혐의 입증보다 대통령 조사 전 사실관계 보강 차원 소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 개별 면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면담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재벌 총수들을 대거 소환 조사 중인 13일 저녁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사면·수사무마·사업특혜 ‘거래’ 있었다 총수마다 6~10시간 심야 ‘마라톤 조사’

檢 조사에서 모두 ‘대가성 출연’ 부인
“비공개 소환 지나친 기업 배려” 지적

지난해 대통령과 독대한 7개 그룹 총수 모두가 지난 주말 검찰에 일제히 소환됐다. 대기업 총수가 무더기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소환조사는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대가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총수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 대가성과 민원은 없었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 여부를 놓고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을 조사했고 1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각각 조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008년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후 8년 만이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과거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직접 소환되지 않은 만큼, LG 역사상 처음으로 총수가 검찰 출두를 하게 됐다. 일본 출장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검찰은 총수들을 상대로 장시간 박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재벌 총수들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청년희망펀드 거액을 출연한 것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총수들은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지는 등 수사 강도는 당초 예상보다 높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수사면·검찰수사·사업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삼성은 한화와의 박민, 삼성물산 합병 등 그룹의 가장 큰 사업적 결단들이 불미스러운 일과 연결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세에 맞서 적극 방어에 나선 바 있다. 또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비텍스스포츠에 35억 원을 우회 지원한 배경과 다른 승마 선수와 달리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베푼 이유도 함께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와 한화, CJ그룹은 총수사면과 결부시키는 소문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언급이

대통령 독대 대기업 총수 소환 관련 재계 의혹	
SAMSUNG 삼성	1 정유라 해외 승마 훈련 35억 원 지원 2 삼성·한화, 박민 승인 대가 및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성사 대가 3 최순실 조카 신생 단계 5억 원 지원 4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성 여부
HYUNDAI 현대차	1 차은택 관련 광고사 수수 의혹 2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성 여부
LG	1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성 여부
LOTTE 롯데	1 롯데 총수 일가 비자금 관련 검찰 수사 무마 2 최순실 관련 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배경 3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성 여부
한화	1 한화 면세점 사업 진출 대가 2 김승연 회장 사면 대가 3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성 여부
SK	1 최태원 회장 사면 대가 2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성 여부
CJ	1 이재현 회장 사면 대가 2 차은택 정부 예산 물이주기 및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배경 3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성 여부
한진	1 청와대 압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임

부적절하다”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억측”이라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을 비공개로 면담하지 않은 데다,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소환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의 경우 지난해 8월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 대가성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손경식 회장 상대로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의 ‘퇴진 요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보충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호지부지 마무리된 롯데그룹 검찰 수사가 대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양호 회장에게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갑자기 사퇴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여론의 관심이 쏠릴집회에 열린 시기에 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기업 입장을 배려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총수들이 외부 눈에 띄지 않도록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우 기자 acw@

주말 줄줄이 검찰청 간 ‘대통령 독대’ 대기업 총수

출연금을 뇌물로 봤다면 소환 전 압수수색 등 조치 있었겠지만...

검찰, 대가성 입증 안돼 뇌물죄 적용 난항 총수 처벌은 어려울 듯
부영·삼성전자·포스코, 별도혐의 걸려있어 관계자 기소 가능성도

검찰이 12~13일 기습적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출소환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급된 대기업 출연금을 뇌물로 보기에는 조사가 촉박하게 진행돼, 이번 조사로 기업 총수들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이뤄진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면담 내용을 규명하고, 재단 출연금을 낸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대기업 총수들이 기금 출연을 빌미로 박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민원을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일 총수들이 기업마다 처해 있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을 전달한 후 출연금을 냈다면 이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된다.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면,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업 총수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대기업들이 낸 돈을 뇌물로 보고 대가성을 규명하려고 한다면, 총수 소환에 앞서 문제가 되는 회사들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선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받은 기업 최고 책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하는 데 그치고, 뇌물 공여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수뢰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면 기업 관계

자들은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

실제 검찰은 현재까지 대기업 출연금을 뇌물로 보고 혐의를 적용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로 보려면 대략적이라도 재단에 지급된 돈이 청탁과 함께 전달됐다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실마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부영그룹의 경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언급돼 사안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올해 2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당시 안종범 청와대 수석, 정현식 K스포츠 전 사무총장 등을 만나 재단 출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는 재단 설립금 출연 방식이 아닌 최순실(60) 씨 모녀에게 직접 280만 유로(35억여 원)를 건넸기 때문에 별도의 혐의가 구성될 수도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경우도 최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47) 씨가 포스코 계열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사건이나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이 현대차 임원에게 차 씨의 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수하도록 압박한 부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 총수들과 별도로 다뤄질 예정이다.

좌영길 기자 jy97@



녹차의마이너스푸드 원리에서 찾은 체지방관리 솔루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나이가 들수록 살이 더 쉽게 붙는 건 몸 속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의 몸 속 변화를 읽으면 필요한 솔루션이 보입니다
녹차의 마이너스푸드 원리를 연구한 메타그린,
고지방, 고열량 식품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고 몸 속부터 건강함을 채워드립니다

안으로 건강함을 채우고 밖으로 아름다움을 완성하다
이너뷰티솔루션, 바이탈뷰티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com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고객 상담 전화: 080-023-5454

VITALBEAUTIE

‘양자회담’ 역제안 한 추미애… 정국 더 꼬이나

“민심 전달·정국해법 마련” 박대통령에 긴급회담 요청
박지원 국민연당 원내대표 “야권공조 무시했다” 반발
국회선 “질서있는 퇴진 정치권 준비해야” 목소리 높여

박근혜 대통령의 3당 대표 회담을 거부해 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양자 영수회담을 역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주말 ‘100만 촛불집회’ 이후 박 대통령의 하야·탄핵 등 퇴진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추 대표는 비상시국에서 정확한 민심 전달과 정국 해법 마련을 위해 이날 오후 청와대 측에 박 대통령과의 담판 성격의 긴급 회담을 열 것을 요청했다고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 6시 반에 추 대표가 관계자를 통해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양자회담의 긴급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제와 관련해 “정확한 촛불 민심을 전달하고 정국 해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의제를 정해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입장에선 야당과 어렵게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민주당과 단독으로 영수회담을 진행할 경우 제3당인 국민의당의 반발

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당장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주장해왔지만, 박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설사 양측 간 합의로 해법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회담 제안 사실이 알려지자 “과연 야권공조는 어떻게 하고, 국민이 염려하는 대로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데,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박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정치권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영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안정적 하야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비상시국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법 제63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새누리당 최홍재(왼쪽부터), 김상민(수원), 김진수(충청), 이준석(노원), 이기재(양천) 원내 당협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는 그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다.

국민연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 → 여야 합의 총리 추천·임명 → 총리가 주도해 대통령 퇴진 시기

를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 확정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식구로서 탄핵이다. 하야 이런 말을 지금 입에 담기보다는 대통령께서 국가를 생각해 어떤 결단이든 하실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조개진 與... 친박·비박 따로따로 회의

새누리당이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고 있다. 당 내홍이 극심해지면서 ‘친박계’와 ‘비박계’로 양분된 계파 간 갈등 양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회의를 따로 개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정현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질서 있는 국정수습을 위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참석 대상이지만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일부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당 지도부 즉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날 내년 1월 21일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전대에서 대선 후보의 당 대표 겸직을 허용하겠다는 수습책을 발표하면서 자신은 거국중립내각이 출범하는 즉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주류의 ‘즉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당 내 기류가 빠르게 변할 조짐이다.

비주류의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비주류 중진 의원들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당 지도부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새누리당은 이미

이정현 대표 ‘최고위원회’·정진석 원내대표 ‘비상시국회의’ 비주류 “당 해체 추진” 확대 움직임에 사실상 분당 수순

수명을 다했다. 건강한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안 된다”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 지도부를 공식적으로 불신임하고, 국정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임시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원내뿐 아니라 원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당협위원장인 김상민(경기 수원)·김진수

(서울 중랑)·이기재(서울 양천)·이준석(서울 노원)·최홍재(서울 은평) 위원장은 당 대표실 앞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의 비서였던 이 대표로서는 이 사태를 해결해 갈 수가 없다”면서 “권력유지의 미련을 버리고 민의를 반영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무역장벽 높이는 G20

무역제한 조치 1263건 5.6% 늘어
올 신규 반덤핑 조사도 96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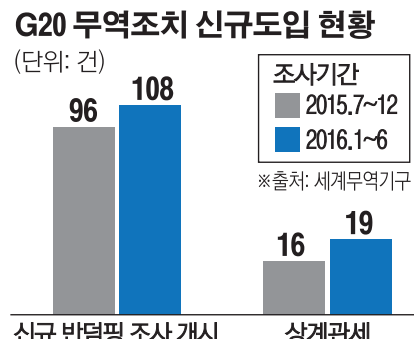
주요 20개국(G20)이 갈수록 무역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20개국(G20) 무역·투자조치 제16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중순 기준 G20의 무역제한조치 누적건수는 1263건으로 5월 중순 1196건에 비해 5.6% 늘었다고 발표했다. 무역제한 조치는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출입제한 조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G20 국가들은 108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작년 반기(2015년 7-12월) 96건보다 12%나 증가한 것이다.

인도가 가장 많은 48건의 조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미국(24건), 호주(11건), 아르헨티나(6건)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도 한 건(중국의 신규조사를 벌였다. 인도·미국(각 2건), 캐나다·중국·인도네시아·터키(각 1건)로부터는 새롭게 조사대상이 됐다.

분야별로는 철강·금속 비중이 38%로 가장 높았다. 화학이 18%로 두 번째였



고, 섬유(11%), 플라스틱(10%), 광물(7%)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치도 19건 새롭게 시작했다. 역시 이전 반기 16건보다 3건 증가했다. 미국이 1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호주가 3건이었고 캐나다·중국·EU·인도는 각 1건이었다.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철강·금속(42%) 부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집중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무역제한조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조그라드는 세계무역

19조3530억 달러 6년만에 최저
주요 71개국 중 70% 수출 감소
韓 수출액 규모 6위서 8위 하락

올해 세계무역액이 2010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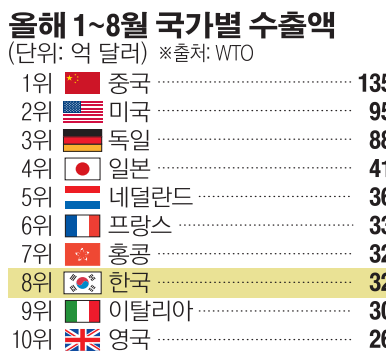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계 주요 71개국 간 무역액은 19조3530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0조2930억 달러) 대비 4.6% 감소한 수치다.

1~8월 세계무역액은 2014년 23조410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난해 11.9% 급감(전년 동기 대비)한 바 있다. 2년 연속 감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로, 올해 세계무역액은 6년 전인 2010년 18조280억 달러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1-8월 세계 주요국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4.4% 감소했다. 71개국 중 3분의 2에서 수출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 감소율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7.2%로 확대됐다. 이 기간 한국의 수출 감소율 역시 6.4%에서 8.8%로 심화됐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감소율은 10.3%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



(8.2%), 대만(6.6%) 등도 5%가 넘는 감소폭을 보였다.

1~8월 중국은 1조3524억 달러 규모를 수출해 세계 1위를 유지했다. 2~5위는 미국(9505억 달러), 독일(8898억 달러), 일본(4169억 달러), 네덜란드(3687억 달러) 순으로 지난해 순위와 동일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3223억 달러로 프랑스(3301억 달러)와 홍콩(3279억 달러)에 밀려 지난해보다 두 계단 낮은 8위로 하락했다. 9위는 이탈리아(3034억 달러), 10위는 영국(2672억 달러)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보호무역 강화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무역이 더 둔화되고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사랑받는 기업’ 포스코에너지·CJ그룹 베트남본부

산업부·중기청 추최 ‘대통령상’ 선정
국무총리표창은 중부발전·이큐브랩

올해 사랑받는기업 대통령상에 포스코에너지와 CJ그룹 베트남지역본부가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추최하는 ‘4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시상식이 1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올해 시상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표준협회, 지속경영학회와 공동 주관한다.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은 2006년 지속가능경영대상으로 출발한 시상식이다. 산업계 전반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3년부터 부문을 확대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사회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확산에 기여한 27개 기관 및 개인이 수상하게 됐다. 기관 부문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성과 평가, 소비자평가, 국정과제 이행성과 평가 등을 종합해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대통령 표창은 포스코에너지와 CJ그룹 베트남지역본부가 차지했다. 국무총리표창은 한국중부발전과 이큐브랩이 받게 됐다.

“트럼프 정부 대비하라”

민관 통상대책반 가동

대미통상협의회·실무작업반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트럼프노믹스’를 우려하며 민관 합동 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통상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13일 통상·교역 관련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민관 합동의 ‘대미통상협의회’와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통상협의회는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 통상 분과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대미 통상 대책과 미래지향적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역할도 추진한다.

산업부 장관과 무역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업종별 주요 협회, 무역지원기관, 주요 연구기관, 통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부 2차관이 이끄는 실무작업반은 경제단체와 무역지원·연구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수입규제 등 대미 수출 애로와 통상현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찾는다.

산업부는 부처 내에 대미통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미 통상협의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용역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정보도 수집해 나가기로 했다.

대미 통상협의회 첫 번째 회의는 23일 열리며 실무작업반도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미국 새 정부 역점 분야에서 협력 기회 발굴과 함께 사물인터넷, 바이오, 가상현실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추경환 장관은 “한·미 FTA는 양국 간 경제협력과 반영의 플랫폼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기민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존 대응 체계를 강화해 민관 공동의 선제적 대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서울은 ‘관광호텔 공사중’

연말까지 용적률 해택...30여건 승인
객실수 경증...작년에만 7089실 늘어
명동에 455실·잠실에 554실 등 예정
관광객 증가에도 공급과잉 우려 높아

서울시 관광호텔 신축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관광숙박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해택 막차를 타기 위해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명동과 송파구 신천동에 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명동 이비스엠베서티 호텔이 들어선 자리에 455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새로 건립된다. 잠실 제2롯데월드 인근에는 554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선다.

이에 앞서 마포구 서교동 371-19번지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 통과로 흥대 인근에 104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선다. 또 강동구 명일동 353-2 필지상의 관광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이 통과돼 이 지역에 134실 규모의 호텔이 세워진다.

이밖에도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0번지 용적률 상향(160실) △광진구 군자동 473-21호 등 3필지의 관광숙박시설 용도지정(115실) △강남구 역삼동 708-4번지 외 5필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안(298실) 등

이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매달 둘째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관광호텔의 용적률 상향 건축심의안과 지구단위계획안 변경 등의 안건이 한 달에 1~2꼴로 상정되고 있다. 지난해만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 용적률 상향 안건과 관련해 시가 승인한 것만 24개에 달하고, 올해까지 합치면 모두 30건이 넘는다.

이 때문에 서울에 위치한 관광호텔의 총 객실수는 지난해부터 경증 뛰었다. 작년에 무려 7089실이 늘어 4만1640실을 기록했다. 이전까지 △2011년 2만 3703실 △2012년 2만7156실 △2013년 3만554실 등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관광호텔 신축이 유계(중국인 관광객) 등 해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공급 과잉 부작용의 직견탄을 우려하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승인된 호텔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수익성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국내 숙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서울지역의 공급과잉(수급불균형)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숙박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isa@

D-3... 수능 문답지 전국으로



14일 오전 세종시 한 인쇄공장 관계자들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공사 통합 급물살 박원순 시장 야심작 결실 맺나

노사정 협의체 합의...구조조정 양기로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가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야심작으로 추진해온 양 공사 통합은 메트로 양대 노조(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와 서울도철노조 조합원 투표가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향후 통합 과정에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통합 후 전체 인력 가운데 총 1029명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인건비 절감액의 45%는 안전투자 재원으로, 55%는 직원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다. 또 안전 업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과 관련된 인력 증원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노사정 통합 합의를 토대로 통합공사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간 부실, 사고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하철 운영기관 통합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isa@

시장복귀 기회잡은 STX조선...회생안 인가

법원 “연봉 삭감 등 자구 노력에 승인”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STX조선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STX조선 2·3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89.1%, 회생채권자는 66.9%가 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는 4분의 3, 회생채권자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 개시 전 이자의 36.2~100%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한다.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으로 갚고 남은 빚은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주

식과 출자전환한 주식을 재배합해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줄어든다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법원 관계자는 “STX조선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과 강한 회생 의지, 근로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회생 등에 힘입어 신청 이후 약 5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인가됐다”고 밝혔다. STX조선은 회생절차에 들어온 뒤 임원 연봉 삭감, 저가 주주 선박에 대한 계약해지, 비핵심 자산매각 추진 등 자구 노력을 해왔다. 이달 3일에는 노사가 상여금 축소, 성과급 지급 중단, 순환 휴직 등의 내용이 담긴 임금단체 협약에 합의했다.

법원은 현재 STX조선과 STX프랑스 등 패키지 매각을 진행 중이다. 4일 예비 입찰에는 네덜란드 다멘과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유럽계 조선사 4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찰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리먼브라더스, 금호산업 상대 1300억대 소송 패소

대우건설 주식 인수 풋옵션 대금 못받아

리먼브라더스 유럽 법인이 1300억 원대 풋옵션 대금을 돌려달라고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1일 유럽법인인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풋옵션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리먼은 2006년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미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다. FI들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할 수 있는 풋

옵션을 갖게 됐다. 대우건설 주식을 2만626원에 사서 3만2500원에 되팔 수 있는 권리였다. 풋옵션이란 FI가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위기에 처하자 2010년 초 리먼은 풋옵션을 행사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풋옵션 채권’ 처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주식을 인수가보다 낮은 1만 8000원에 사주기로 했다. 하지만 리먼은 산은이 지분을 인수해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먼은 산은이 주식인수를 이행하지 않고 대금을 주지 않았으며 원금 1287억 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사전 공개

내년부터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의 원금 일부와 이자 전액을 면제받는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돼 장학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연체 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 대출원리금 일부인 원

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또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신청 전 학자금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학기에는 소득분위 8분위 경계값이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982만3286원 이하로 정해졌다.

해외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재외국민들의 소득분위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은평 기자 pepe@

강한 달러 시대 달러 투자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Google Play Store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크레온을 검색해 주세요.

연 2.0% 크레온 달러RP 특별판매

- 수익률: 연 2% (세전, 2016.10.01 기준)
 - 한도: 개인별 1만\$~50만\$
 - 수익률 적용 기간: 3개월
- *3개월 이후 또는 중도해지시 수시RP 수익률 적용

고객감동센터 1544-4488



제16-05194호
(2016.10.10-2016.11.11)

*USD RP는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지 않으며,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됩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위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0%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의 만기일 이전 중도환매 할 경우 당초 약정수익률보다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로 지급됩니다.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크레온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크레온
by 대신증권

15년 만에 민영화 성공 우리은행, 정부 입김 벗어날 수 있을까

매각 이후에도...
정부가 최대주주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7곳을 새롭게 맞이해 집단경영 체제로 민영화된다. 지난 2001년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지 15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네 차례에 걸친 민영화 실패를 통해 우리금융지주를 우리은행으로 몸집을 줄이는 한편, 경영권을 포함한 일괄 매각에서 지분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쪼개 파는 '분할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 해법을 변경해 다섯 번째 시도 끝에 성공했다.

예보, 29.7% 매각 의결... 21.4% 남아
과점주주 7곳 중 6곳 친정부 기관 분류
절대주주 없어...행장 선임 등 내분 우려

◇15년 만에 민영화 성공 = 14일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우리은행 지분 29.7%를 7개 투자자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예보의 우리은행 보유 지분은 21.36%만 남게 됐다.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곳은 키움증권(4%), 한국투자증권(4%), 한화생명(4%), 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생명(4%), 유진자산운용(4%), 미래에셋자산운용(3.7%), IMM 프라이빗에쿼티(6%)다.

하지만 절대주주가 없는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절대주주가 없는 국민은행의 경우 두자레나 지배구조를 놓고 내분을 겪었다.

정부는 남은 지분 21.4%를 언제쯤 매각할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우리은행 주가가 오르면 이를 기회로 삼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만 세워졌다.

◇많아진 사공...행장 선임 어떻게 = 이번 매각이 성공하더라도 진정한 민영화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매각 후에도 예보의 우리은행 지분 21.4%가 남아 여전히 최대주주이기 때문이



우리은행 민영화 일지

2010년 10월	우리은행 1차 민영화, 병행방식 매각 공고
12월	우리금융 컨소시엄 입찰참여 포기, 민영화 중단
2011년 5월	우리은행 2차 민영화, 우리금융 일괄 매각 공고
8월	우리금융 예비입찰 유효경쟁 미달(1곳 신청), 민영화 중단
2012년 4월	우리은행 3차 민영화, 우리금융 일괄 매각 공고
7월	우리금융 예비입찰 유효경쟁 미달(신청자 없음), 민영화 중단
2013년 6월	우리금융 분리 매각 추진
2014년 4월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우투증권+생명보험+저축은행+자산운용) → NH농협금융지주에 매각 완료
6월	우리은행 4차 민영화, 경영권(30%) 및 소수지분(26.97%) 분할 매각 발표
11월	중국 안방보험 단독 입찰로 유효경쟁 미달, 민영화 중단(소수지분 매각만 성사)
2015년 7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식 포함한 민영화방안 발표
9월	중동 국부펀드와 매각 실무협상 개시 및 무산
2016년 8월	우리은행 매각 공고 실시(22일)
9월	우리은행 예비입찰 마감(23일)
11월	본입찰 마감(11일) → 7곳 과점주주 선정 발표(13일) → 주식매각 납입 및 매각 완료(27일)
12월	임시 주주총회 개최(30일) → 새 사외이사 선임

다. 일단 정부는 2001년부터 우리은행과 예보가 맺어 온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주주가 되는 과점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고 예보에서 파견된 비상임이사 1명을 임원추천위원회에 불참시키기로 해 주주들이 원하는 은행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새로운 과점주주가 될 7곳의 투자자 중 동양생명 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5곳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

서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 지분매각이 완전히 끝나면 다음 달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내년 1-2월 경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행장 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차기 행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총을 통해 공식 임명된다.

다만, 과점주주 7곳 중 안방보험이 대주주인 동

양생명을 뺀 6곳이 친정부 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부의 입김은 계속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들 위주의 집단경영 체제의 첫 시험대는 내년 행장 선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왜 빠졌나 = 외국계 투자자가 이번 우리은행 본입찰에 응하지 않은 배경에는 정부발 불확실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꼽히던 베어링PEA, 오릭스, 에피니티 등이 막판 불참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경우 외국자본이 우리은행 매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우리은행 지배구조상 자율 경영에 대한 정부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 외국계는 은행업 중심인 우리은행이 비은행 부문을 통한 안전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어려운 데다 주가가 많이 올라 시세차익이 적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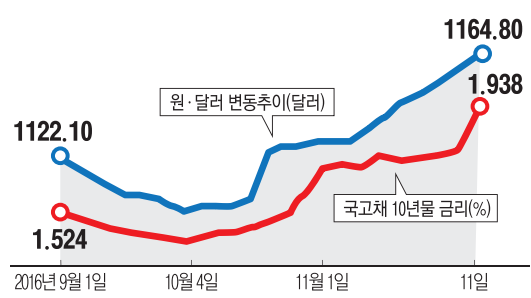
최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영 비효율성 개선 등 기대감도 있지만, 과점주주 위주로 주주 구성이 바뀐다고 해도 당장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가치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진 선임이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폭적으로 과점주주에게 권한을 부여·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줘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치솟는 채권금리... 은행, 채권발행 연기

국고채 10년물 1.938%까지 급등
20년·30년물은 9개월만에 2%대로
KEB하나은행, 코코본드 발행 불발

국고채 10년물 금리와 원·달러 변동 추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채권 금리가 치솟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대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에 채권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감이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금리가 치솟자 일부 은행은 채권 발행을 연기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고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11.9bp 오른 1.938%까지 급등했다. 20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9.9bp 상승한 2.027%, 30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9.6bp 오른 2.046%를 나타냈다. 20년물과 30년물이 2%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2월 초 이후 9개월 만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으로 미국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내외 금리차 역전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9월(현지시간) 이후 장기채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지난 10월 2.15%에 올라섰고, 30년물 금리도 3%대에 바짝 다가갔다.

트럼프의 재정확대에 경제 성장에 촉진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배경이 됐다. 경기 부양에 따른 물가 상승 전망에 미국 채권 금리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말까지 미국 10년물이 2.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역시 2%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권 약세장이 강해짐에 따라 기관들의 채권 발행에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오는 25일 예정된 2000억 원 규모의 10년 만기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내달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발행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3일간 26.7bp 치솟으며 가격이 떨어진 탓이다.

트럼프 경기 부양 정책은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당선 전 1130원대에 머무르던 원·달러는 지난 11월 1164.8원까지 치솟았다.

공항,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재정확대, 세금감면 및 규제 완화에 따라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됐다. 앞서 지난 10월(현지시간) 제프리 래커 미국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트럼프의) 재정정책 실행은 금리 인상 경로를 더 가파르게 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김두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트럼프의 재정 확대 정책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면,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였다”면서 “원·달러는 단기적으로 1210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중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 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 법인세 MRI 검사
- 부가가치세 MRI 검사
- 상업登記 알람서비스
-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정보처리)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의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금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영업지원 시스템 AIA생명 '아이맵'

AIA생명 한국지점은 영업지원 시스템 '아이맵(iMAP)'을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맵은 고객중심성, 혁신성, 간편성 등 세 가지 키워드로 기존 업계 시스템과 차별화를 추구했다. 고객 중심성은 업계 최초로 서류 작성 없이 전자문서 생성만으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구성했다. 고객 본인 인증만으로 당일 지급 가능한 보험금 한도(일반성 사건)를 확대했다. 사진제공 AIA생명

KB 금융그룹



복잡한 송금은 그만! 10초면 끝나는 Liiv머니보내기

KB 모바일 뱅크 **Liiv** 리브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 이름만으로 10초 만에 송금이 되는
KB만의 신개념 모바일 뱅크 Liiv를 만나보세요



아이오아이(I.O.I) 세정



상대방의 이름만 알면 보안매체 없이도 쉽고 빠르게 송금 완료!
생활이 빨라지는 KB모바일 뱅크, Liiv를 만나보세요

Liiv 머니 보내기 방법

1

받는 분의 이름 입력

받는 사람 이름 확인 후 보낼 금액 입력

2

원클릭으로 송금

클릭 한 번하고 카톡으로 쉽게 송금한다
(1일 30만원 한도 내, 수수료 0원)

3

메시지로 수취 가능

리브 앱을 깔지 않았어도 카톡 메시지 확인 후 간편하게 입금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Liiv 앱을 다운 받으세요

※기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은 2016.12.31까지입니다. 준법감사인 심익필 제 683호 (2016.10.05)

KB 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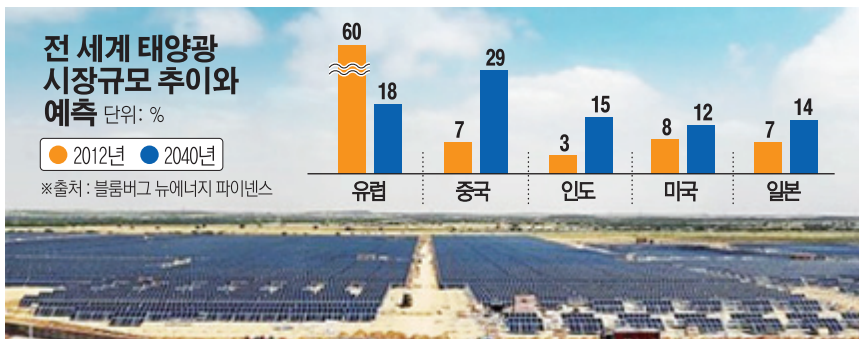
“트럼프 쇼크 없다”는 태양광업계, 왜?

“화학연료 확대” 성장둔화 우려
글로벌시장서 美비중 10%내외
OCI·한화큐셀 “걱정하기엔…”
中·인도·중동 잠재력 본격광락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업계는 대미 비중이 작은 만큼,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OCI의 국가별 수출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다. 중국이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2016년 1분기 기준 북미가 50.6%를 상회하고, 일본 15.2%, 유럽 2.1%, 기타 국가가 32.1%를 차지하고 있다.

OCI는 국가별 수출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영향이 미미하다



는 입장이다. 한화큐셀도 북미의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사업의 주요 요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정책인데, 현재로서는 크게 변경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하며, 미국보다 중국, 인도, 중동의 태양광 시장 성장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향후 해당 시장 확보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2012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68%를 유럽이 차지했지만, 2040년까지 누적 설치량 기준으로 최대 설치국은 중국이 차지할 전망이다. 2040년까지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1000GW에 달해 세계 태양광 수요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다음으로 유럽 18%, 인도 15%, 미국 12% 순이며, 아시아 지역 비중은 6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 자국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현재 약 5GW인 태양광 발전을 2022

년까지 100GW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OCI와 한화큐셀은 인도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OCI는 2월 인도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진행을 계획 중이다. OCI 관계자는 “인도는 앞으로 미국보다 더 크게 성장할 시장”이라며 “아직 인도 법인은 시작 단계이지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큐셀도 지난해 4월 인도 최대 액셀러레이터인 로하 다이렉트와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맺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마힌드라 그룹의 신재생에너지 계열사에 141MW 모듈을 공급하는 등 총 600MW의 모듈을 판매했다. 또 지난해에는 18.3MW에 이르는 터키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건설, 중동 터키 태양광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현재 인도나 중동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떠오르는 시장을 공략하고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현대車 ‘H-마케팅 마스터 클래스 3기’ 수료식



현대자동차는 대학생 대상 자동차 산업 마케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 ‘H-마케팅 마스터 클래스’ 3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H-마케팅 마스터 클래스’는 대학생들의 자동차 산업 마케팅 실무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료한 3기 참가자 60명을 포함 현재까지 총 240명의 대학생이 참가했다. 3기 수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내수 4위는 못내줘…르노삼성 vs 쌍용차, 자존심 경쟁

르노삼성 SM6·QM6 인기행진

쌍용차 ‘티볼리’ 가속페달 땀주력

판매량 1079대差 앞지락뒤치락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연말을 앞두고 ‘내수 팔찌 탈출’을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 부동의 12위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지엠이 일찌감치 3위를 예약한 가운데, 르노삼성과 쌍용자동차가 마지막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르노삼성은 8만4458대를 판매해 지난해 동기보다 판매량을 32.4% 늘렸다. 같은 기간 쌍용차는 8만3379대를 판매해

르노삼성·쌍용차, 연도별 내수 판매량

	르노삼성	쌍용차
2012년	5만19926대	4만17700대
2013년	6만277대	6만13970대
2014년	8만193대	6만19036대
2015년	8만117대	9만19664대
2016년 10월까지	8만4458대	8만3379대

※자료: 각 사 제공

전년 대비 판매량이 5.2% 증가했다. 현재 양 사의 누적 판매량 격차는 1079대에 불과하다. 연말까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의 승부다. 양 사는 지난 수년째 앞지락뒤치락 불명예 타이틀을 탈출하기 위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르노삼성은 ‘SM6’에 이어 ‘QM6’을 앞세워 내수 시장에서 파죽지세의 행

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2536대를 판매한 QM6은 10월 들어 두 배에 가까운 4141대를 판매했다. 특히 경쟁 차종으로 꼽혔던 현대차 ‘싼타페’를 누르고 단숨에 중형 SUV 2위를 차지했다. 르노삼성은 연말까지 SM6·QM6 쌍끌이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 올해 판매목표 11만 대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쌍용차도 ‘티볼리’를 동력으로 성장페달을 밟고 있다. 티볼리는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한 4만6232대가 팔려 한 달 평균 5000대에 이르는 판매고를 기록 중이다. 여기다가 ‘코란도 스포츠’가 매달 2000대 이상 꾸준히 판매되면서 내수 실적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다. 쌍용차는 올해 11만 대 내외를 내수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철우 기자 acw@

벤츠 ‘SUV가 효자네’ 올해 5만대 목표 눈앞

7454대…지난해 판매량의 2배↑

“벤츠는 올해 SUV의 해였다.”

11일 경기도 용인 메르세데스-벤츠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열린 ‘더 뉴 GLE 쿠페 & GLS 익스피리언스’에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벤츠는 지난달 수입차 최초로 월 6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올해 판매 목표치였던 5만 대 달성을 눈앞에 뒀다. 특히 SUV 라인이 인기를 끌면서 벤츠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벤츠는 올해 10월 누적 기준으로 총 4만4994대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SUV 판매량은 7454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2758대)보다 2.7배 늘어났다. 벤츠 전체 판매량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1%에서 올해 16.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올해 초 실라키스 사장이 목표했던 ‘SUV 판매 비중 1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올해 벤츠는 컨슈머사이트에서 조사한 ‘고객 서비스 만족도’에서 1위, 한국표준협회 ‘2016 품질만족지수’ 수입차 AS서비스 부문 1위를 기록하면서 실라키스 사장이 올해 초 목표했던 3가지 모두 달성하게 됐다. 실라키스 사장은 “SUV 판매 비중 10% △연간 5만 대 판매 △고객 만족도 1위 달성 등을 목표로 세웠다.

벤츠는 연내 ‘더 뉴 GLS 500 4메틱’과 ‘메르세데스-AMG GLE 63S 4메틱’을 출시해 기존 모델의 세부 라인업을 강화한다. 실라키스 사장은 “SUV 시장이 성장하는 중에서도 프리미엄 SUV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풀 SUV 라인업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이번엔 500억…네이버 신규펀드 스타트업 투자·해외진출 돕는다

지난 9월 ‘…K-펀드’에 1억 유로 소프트뱅크벤처스와 웹툰 육성

네이버가 새로운 콘텐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해외 진출을 대비한 발판을 마련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해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벤처스와 함께 콘텐츠 분야에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에스비넥스트미디어이노베이션펀드)를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네이버 400억 원, 소프트뱅크벤처스 45억 원, 한국벤처투자 5억 원 등 총 450억 원 외에 해외 기관에서 추가로 50억 원이 출자될 예정이다.

이번 펀드를 통해 양 사는 웹툰과 비디오, 게임 등의 콘텐츠와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콘텐츠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술 관련 스타트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내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범위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초기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소프트뱅크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전문 투자 인력 이외에도 김장욱 스노우 대표와 김준구 네이버 웹툰&웹소설CIC 대표가 투자 자문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일궈내고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펀드의 투자자문위원인 김장욱 스노우 대표는 “스노우와 웹툰 같은 플랫폼 경쟁에서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관련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번 투자가 플랫폼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9월에도 프랑스의 ‘코렐리아 캐피탈 K-펀드’에 1억 유로 투자를 밝힌 바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일본에서 성공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후발 주자 로 스노우와 웹툰을 꼽은 만큼 이번 펀드가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성준 기자 ttiatio@

LG전자 노트북 ‘그램’ 日 상륙

“정식 유통망 통한 판매는 처음”

외산의 무덤? 무게·디자인 공략

LG전자의 노트북PC ‘그램’이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LG전자는 과거 ‘엑스노트’ 시리즈 등 일부 노트북PC 모델을 일본에 판매한 적은 있지만, 정식 유통망을 통해 일본 현지에서 론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램’을 통해 외산 브랜드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기술력을 보여 주겠다는 게 회사 측 전략이다.

14일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9월 말 그램 15인치 모델을 일본 시장에서 론칭한 후 판매 중”이라며 “그램 노트북으로 처음 일본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초기라 판매량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반응은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형적인 내수 업체 독점 시



장이자, 한풀 꺾였지만, 일본 국민들이 소니나 파나소닉 등 자국 브랜드에 갖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노트북PC 역시 삼성전자는 2000년대 초반 ‘센스’ 브랜드를 통해 일본 시장 공략을 시도했지만, 유통망 공략에 실패하고 철수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일본 노트북PC 시장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유통망을 뚫는 게 어렵다”며 “하지만 이번에 ‘그램’으로 유통망 공략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전자 ‘타이젠’ 생태계 키운다

앱 개발자에 월 100만달러 지급

인도 타깃…9개월간 900만달러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타이젠 운영체제(OS) 생태계 확장을 위한 승부수를 걸었다. 9개월간 총 900만 달러(약 105억 원)를 투입, 타이젠 애플리케이션(앱)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

삼성전자는 인도 소프트웨어 업체 연합회인 나스콤(NASSCOM)이 주최한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 타이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타이젠 전용 앱 장터인 ‘타이젠 스토어’에 등록된 앱 중 매월 다운로드 건 수에 따라 상위 100개 앱을 선정, 각각 1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진행하며, 매월 최대 100만 달러(약

12억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9개월간 총지원액은 900만 달러에 달한다.

타이젠 스마트폰은 보급형 시장인 인도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인도에서 첫 번째 타이젠폰 ‘Z1’을 출시했고, 같은 해 10월 ‘Z3’, 올해 8월 ‘Z2’를 발표했다. 하지만 타이젠 OS용 앱은 2000여 개 수준에 불과해 구글이나 애플 마켓보다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인도는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2018년 12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2015인도 타이젠(TIZEN) 워크숍’을 후원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콘텐츠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앱 개발자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현 기자 yhssoo@

배수진 친 KAI 하성용 …“31조 美훈련기 수주”

하성용(사진)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이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Advanced Pilot Training) 교체 사업에 ‘생각사 사즉생’(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다)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 사장은 11일 서울 충청로 한국경제신문빌딩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산학위원회 정책토론회’ 최고경



“내년 APT사업 못타내면 사퇴” 美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 구성 수주편 18만명 고용 창출 효과

영자(CEO) 환영사를 통해 “지난 7월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내년 APT 사업에 KAI가 선정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둘 각오로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전 임원들도 동참해 사직서를 내는 등,

사업 수주를 위해 ‘생각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T-38C 후호 교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에 뛰어드는 곳은 모두 4곳이다. KAI는 록히드마틴과, 미국 보잉은 스웨덴사브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미국 노스롭그루먼과 영국 BAE도 가세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말 APT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 사장은 “APT 사업은 미공군 고등훈련기 350대와 훈련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해군 수요를 포함하면 최대 1000대로 늘어나면서 38조 원의 파급 효과와 1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되는 건국 이래 최대 수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AI는 이달 17일(현지시간) 록히드마틴의 비행훈련 센터와 고등훈련기 조립 공장이 있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미 국방부 및 공군 관계자와 언론들을 대상으로 T-50A의 시범비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경 기자 mik@

앞치락뒤치락~ ‘GS25·CU’ 편의점 선두 경쟁 ‘진격의 허연수’ 내실서 앞섰다

〈GS리테일 사장〉



GS25, 3분기 매출·영업익 1위 올라
영업이익률도 5.2%로 CU보다 높아
매장 수는 CU 1만509개 선두 지체

편의점 업계 1위를 놓고 GS리테일 GS25와 BGF리테일 CU의 대결이 치열하다. 편의점 점포 수에서 흥석조 BGF리테일 화장이 업계 톱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속 측면에서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에게 추월당했다.

9월 업계에 따르면 GS25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5195억 원, 79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5%, 16.7%의 신장률을 나타냈다. 편의점 업계 1위를 두고 경쟁 중인 CU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모두 2분기 연속 앞지른 실적이다.

GS25의 올해 1분기 매출은 9502억 원, 영업이익은 38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672억 원의 매출과 27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CU에 매출 항목에서 뒤졌다. 2분기에는 GS25의 매출이 1조4011억 원, 영업이익이 681억 원이며 CU는 매출 1조2422억 원, 영업이익 557억 원으로 매출에 영업이익까지 모두 CU에게서 1위 자리를 가져왔다.

3분기 들어서도 GS25가 매출과 영업이익의 모두 CU를 앞지르면서 업계 1위를 두고 두 회사의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바통을 넘겨받은 허연수 사장이 편의점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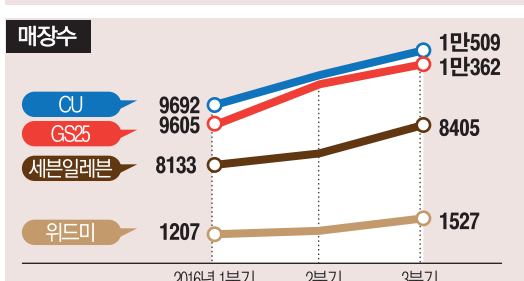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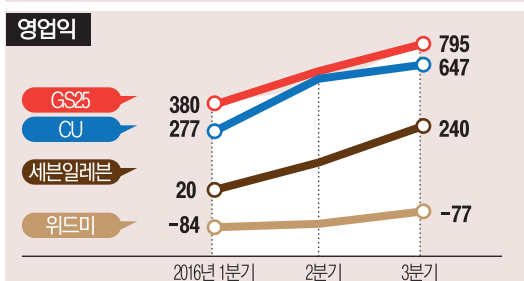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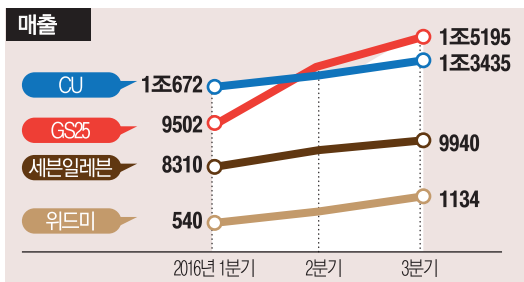
실속(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CU가 연초보다 GS25를 따라잡긴 했으나 여전히 뒤지고 있다. 각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GS25는 1분기에 4.0%, 2분기 4.9%, 3분기 5.2%로 편의점 4사 중 홀로 5%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CU는 1분기 2.6%에서 2분기 4.5%로 GS25에 근접했으나 3분기 4.8%로 영업이익률이 0.4%포인트 모자란다.

다만 매장 수 측면에서는 CU가 여전히 GS25에 앞서 있다. 작년 말 9409개였던 CU 점포 수는 1분기 9692개, 2분기 1만106개, 3분기 1만509개로 올해에만 1100개를 확장했다. GS25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작년 말 9285개였던 점포 수는 올해 들어서만 1077개를 늘려 3분기 기준 1만362개다. 양사의 점포 수 격차는 작년 말 124개에서 3분기 말 147개로 좀 더 벌어졌다.

한편 편의점 업계 후발 주자인 이마트의 위드미는 나 홀로 고전 중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상생’을 표방하며 선보인 위드미는 1분기 매출 540억 원, 영업손실 84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도 매출은 888억 원으로 늘었으나 적자는 84억 원으로 계속됐다. 3분기에는 매출이 1134억 원, 영업손실이 77억 원으로 적자폭을 다소 줄였다. 점포 수는 작년 말 1058개에서 3분기 1527개로 469개를 확장했다.

조남호 기자 sprdan@

편의점 업계 실적 추이(단위: 억원, 개)



면세점에 명운 건 이동호 현대백 사장

마지막 티켓 획득 여부 따라 ‘책임론’
입찰결과 발표 후 인사 폭도 영향권

이동호 현대백화점 대표이사의 명운이 면세점 취직에 달렸다. 현대백화점은 12월 신규 면세점 특허 입찰 결과에 따라 임원 인사는 물론, 부사장급 권고사직 불륨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동호 현대백화점 대표는 신규 면세점 입찰 경쟁 당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는 등 전적인 책임을 졌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했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의 특명을 받고 올해 백화점 지분 100%의 면세법인 현대면세점을 세워 야심 찬 재도전에 나섰다.

14일 현대백화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호 현대백화점 사장과 장호진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부분부장(부사장)의 항배 역시 면세점 취직 결과에 달렸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의 추가 특허 입찰 결과 발표 이후이자 임원 인사 직전 40여 명의 부사장급 권고사직 계획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 추가 특허 취직 결과에 따라, 최소 15여 명까지 인원 불륨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을 직접 방문해 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이동호 사장.

지난해 면세점 탈락에도, 이동호 사장에 대한 재신임이 주어진에 따라 이번 면세점 추가 특허에 대한 ‘마지막 티켓’ 취직 여부를 둘러싸고 ‘책임론’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도전 업체 가운데 최근 가장 적극적인 어필 활동을 보이는 점에 관해서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이동호 사장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다. 지난해 면세 취직 업체에 대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롯데, 신세계 등의 연루 혐의가 불거져 나오면서 올해에는 현대면세점의 가동 범위가 오히려 자유롭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KT, 동작 인식 웨어러블 운동기기 ‘네오피트’ 출시



KT는 오는 17일 100여 가지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기기 ‘네오피트(NEOFIT)’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네오피트는 운동 종류·횟수·시간·소모 칼로리를 자동으로 측정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록해준다. 네오피트는 손목에 차는 형태로, 밴드는 폭 18mm의 일반 시계줄 크기로 교체할 수 있다. 가격은 14만9000원으로 연말까지 할인가 9만9000원이다.

사진제공 KT

위메프 “식료품 고객 잡자”... ‘신선생’ 오픈

신선식품 직배송 서비스... 온라인 매출 비중 10% 불과 성장성 높아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신선식품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신선식품 직매입전문 판매 상품인 ‘신선생’을 오픈한다. 이는 정기적인 구매가 이뤄져 고객 충성도가 높은 식료품 품목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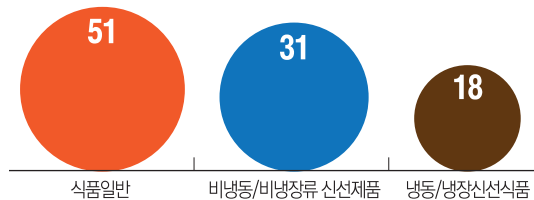
최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김영란법 도입 이후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외식업 평균 매출은 24.5% 하락한 반면, 식료품 판매 매출은 최대 10%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내 유통시장에서 식료품 온라인 매출 비중은 10%로 미미한 상황이다. 신선식품 품목에 대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점차점에 따라, 온라인 쇼핑물 업체들은 이를 강화 중이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위메프는 신선식품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위메프 물류센터 내 660평 규모의 냉장시설을 완비하고 신선식품 직배송 서비스인 ‘신선생’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메프 신선식품 직배송 ‘신선생’ 서비스는 1인 가구, 다품목 소량의 신선식품 상품을 묶음 배송으로 익일배송이 가능케 했다는 게 특징이다.

또 신선도 관리를 위해 전 상품을 대상으로 전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고 물류 전담팀이 배송 전 2회에 걸쳐 육안으로 품질검사 후 배송해 신선도에 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과 2개, 계란 10개, 콩나물 한 묶음, 우유, 쌀, 정육 등의 소량 상품까지도 묶음 배송과 동시에 밤 10시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이 가

위메프 식품 판매 비중 (단위: %)



유통업체별 식품상품 판매 비중 (단위: %)

SSM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편의점
87	53	15	10	5

능하다. 이에 위메프는 1인 가족, 맞벌이 가정주부나 육아 가정주부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판매하는 상품은 과일, 채소, 쌀·견과, 정·계란, 수산·건어물, 우유·치즈·요거트, 김·반찬류 등 500여 가지이며, 연말까지 1000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승 위메프 직매입사업본부 본부장은 “대형마트가 주도하고 있는 신선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대형마트 수준의 신선도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면 가격경쟁력 부문에서 우월한 온라인 쇼핑몰로의 구매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며 “위메프 신선식품 직배송 브랜드 ‘신선생’을 통해 정기 구매도가 높은 충성도 높은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잇몸? 세균!

NEW

잇몸가그린 GUM GUARD

검GUM=잇몸 가드GUARD=자킨다

잇몸질환의 원인은 세균! 그래서, 잇몸을 위한 가그린이 나왔습니다

임 속에는 충치원인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잇몸질환원인균까지 구석구석 숨어있죠. 세균을 잡아야 잇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잇몸을 지키다 잇몸가그린 검가드

충치원인균은 물론 잇몸질환원인균까지 99.9% 살균

6주간의 임상 시험 결과 치은염, 치주염 예방 및 개선효과 확인

충치원인균 무탄소균 잇몸질환원인균 잔여물리스균 99.9% 살균효과

고객만족실 080-920-2002(수신처부담)

BIG BANG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힘들고 어려웠던 아이언 4,5번 거리를 이제부터는 아이언 7,8번으로

쉬고, 포진하세요!!



누구나 한 두 번 실수를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실수 후에 만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누구나 가끔 드라이버를 잘못 칠 수 있지만
현명한 골퍼는 세컨샷 선택이 다릅니다
돌이켜 보면 스코어는 여기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길게 남은 거리 - 롱아이언을 잡아야 할 시점에
40야드 더 나가는 뱅롱디스턴스 롱아이언을 잡으면
쉽고 편하게 투온이 되어
티샷 실수를 만회합니다.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40yd 더 나가는
하이브리드 아이언
BIG BANG Longdistance

일반적인 아이언보다

-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체적이 커서 스위트스팟이 넓고 빗맞아도 뒤들리지 않는다.
- 출발 백스핀 1.12배, 착지 백스핀 3.5배 증가 - 백스핀이 너무 많아 그루브를 없앴다.
- 뒷땅이 없다.
- 엘보우가 없다.
- 스윙이 쉽고 편하다.
-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 (초경량, 스윙밸런스 B3까지도 가능)



대표전화 : 1544-807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37-3 (아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Made in Japan or Made in Korea -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발작’ 진정세

선거 당일까지 불안한 모습 보이다 당선 이후엔 분위기 반전
증시·美 장기 국채 금리·CRB산업원자재가격지수도 급등
트럼프 대선 공약과 다른 행보… 정책 불투명 최대 변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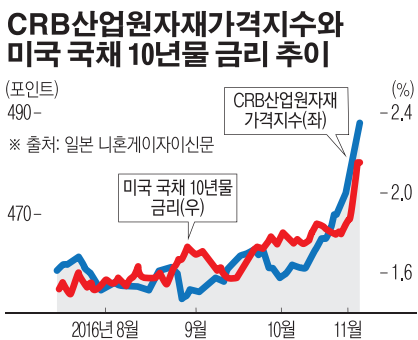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트럼프 발작)’이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 당일,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확정된 이후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이 여전히 불투명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앞날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와 채권, 외환시장은 미국 대선이 좌우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상품시장은 달랐다. 귀금속과 원유를 포함하지 않고 산업용 원자재로만 이뤄진 CRB산업원자재가격지수는 10월 하순부터 치솟았다. 미국 장기 금리의 지표인 10년물 미국채 금리도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급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약속한 감세와

공공투자에 따른 미국 재정수지 적자 확대 우려로 장기 금리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뉴욕증시가 트럼프 당선 이후 강세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니혼게이지아신문은 CRB지수와 미국 장기 금리의 동반 움직임에 주목했다. 그동안 경기둔화 우려를 자아냈던 중국이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전기와 기계, 공공사업, 건설업 등이 살아나면서 신흥국 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여 CRB지수가 올랐다는 것이다. 또 원자재 가격이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는 상승 국면에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미국 주가와 장기 금리가 동반 상승한 것은 트럼프 당선과 상관없이 극단적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는 트럼프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맞물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지난 주말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 우려로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달러와 강세에 상품시장도 조정 압력이 커지는 등 시장이 트럼프 탠트럼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고 신문은 강조했다.

당선 이후 트럼프의 정책은 대선 캠페인 때의 공약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는 이날 미국 CBS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자와 전과자, 갇던 조직원, 마약 거래자 등 200만~300만 명을 추

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유세 당시 불법 이민자 1100만 명 전원을 추방하겠다는 것과 달리 800만~900만 명은 고려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는 배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인 오바마케어에 폐기하지 않고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논란이 있는 정책에 ‘실용주의’를 더하고 있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1조 달러(약 1167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에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월가 규제 완화, 파리 기후변화협약 부정 등 핵심 공약도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로 남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선거 유세 당시 밝혔던 과격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지, 아니면 취임 이후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지가 향후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버핏 “美경제 생각보다 약해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균형”

美 3분기 GDP 2.9% 의구심
하향 가능성 여전히 높아

‘투자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미국 경제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약하다”고 진단했다.

버핏 회장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고향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진행된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다”면서 “물론 약하다는 의미가 취약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발표된 올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가깝게 나온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버핏은 “모두 알다시피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2.9%로 나왔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배팅을 해야 한다면 미국 상무부가 3분기 성장률을 하향 수정한다는 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버핏은 미국 노동자층 평균 임금 개선에 미국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 상황은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견지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임금 불평등 격차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을 파고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버핏은 “포브스가 선정하는 400대 부호 재산은 1982년 930억 달러였지만 지금은 2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무려 25배가 급증한 것”이라며 미국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고 투잡을 뛰는 좋은 부모이지만 사는 게 팍팍하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서 “그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11일(현지시간)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CNN머니 방송 캡처

면 당연히 이 상황이 변화길 원하게 된다. 이에 많은 사람이 투표소로 가서 트럼프가 답이라고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자신과 같은 부자들만 잘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버핏은 “현재 경제 구조가 환경적이지는 못하다”면서 “이런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베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같은 정치 아웃사이더의 지지를 상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던 버핏으로선 큰 입장 변화다. 그는 과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해답일 수는 없다며 근로장려세제(ETC) 확대가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핏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나는 모든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고, 미국인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트럼프가 경제 정책에 도움을 청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버핏 회장은 “시민으로서 할 일 중 하나일 것”이라며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뉴질랜드에 규모 7.8 강진… 쓰나미 경보까지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 인근에서 14일(현지시간) 오전 0시 2분께 규모 7.8의 강진과 수차례 여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 수많은 사람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으며 현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수도 웰링턴의 도로가 지진에 파손된 모습.

크라이스트처치 AP=연합뉴스

부식방지처리 미흡 도요타

미국서 34억 달러 배상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픽업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소유주에게 총 34억 달러(약 3조 9700억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은 도요타의 차량 부식방지 처리가 미흡하다는 소송과 관련, 도요타가 약 150만 대의 차주에게 3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문제의 차량은 2005~2010년형 타코마, 2007~2008년형 튠드라 등 픽업트럭과 2005~2008년형 세카이이다.

2014년 아칸소와 캘리포니아의 차량 소유자들은 자동차 프레임 부식이 빨리 진행돼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차량 검사 및 부품 교체에 대당 12만 달러, 총 33억750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도요타는 이를 받아들였고, 975만 달러의 범위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도요타는 자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이 장기화함에 따라 브랜드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지아신문은 보도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트럼프發 달러 ‘돌발 강세’ 얼마나 갈까

수개월간 약세 면치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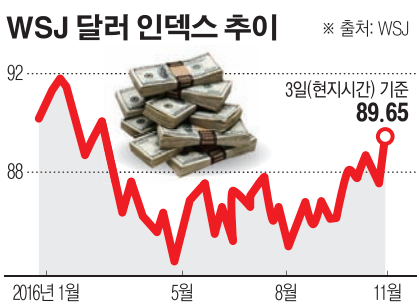
최근 16개국 통화바스켓 2.4%↑

트럼프 공약·금리인상에 랠리

수개월간 약세를 면치 못하던 달러가 예상치 못한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주요 1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추종하는 WSJ달러인덱스는 지난주 2.4%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달러 강세가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달러 강세를 점치는 배경으로는 트럼프가 그간 내건 공약에 있다. 트럼프는 대선 레이스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은 인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달러 강세



를 부추기고 있다.

바실리 세레브리아코프 크레디아그리콜 환율 전략가는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이 올해 남은 2달간의 달러 강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달러 가치가 지난주 3.5% 상승한 데 이어 연말까지 추가로 1.2%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은행은 고객에 ‘달러 매수’를 권고했다.

이 같은 달러의 ‘돌발’ 강세에 무역업 체들과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달러가 한동안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가 내세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시되던 8월 저녁 WSJ달러인덱스는 0.8% 하락했다. 하지만 약세도 잠시, 달러 가치는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여전히 미약하고 트럼프의 경기 부양 정책들이 제대로 검증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려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요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가뜰이나 정체된 세계 경제에 하방압력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미국 경제나 달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WSJ는 지적했다. 브래드 벅텔 제프리스그룹 외환 트레이딩 책임자는 “트럼프가 무역전쟁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전체 무역시장 궤도를 완전히 탈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가 신흥국 통화 대비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는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신흥국의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고, 각국이 이를 막으려고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달러 강세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인도 화폐개혁, 은행엔 ‘양날의 검’

2조 루피 예치 기대 속 혼란 불가피

인도 정부의 급진적 화폐개혁이 현지 은행권에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지난주 전격적으로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은 전국에서 2조 루피(약 35조 원)에 달하는 예금을 예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사용이 중단된 지폐들이 자금 유통에서 약 86% 비중을 차지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9일부터 500루피와 1000루피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연말까지 이들 지폐를 은행이나 우체국 예금계좌 입금 의무화했다. 인도 정부는 새 500루피와 2000루피 지폐 발행으로 공백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혁 조치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도 재무부에 따르면 12일 정오에 자금 거래 횟수가 7000만 회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를 다른 지폐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컸기 때문. 아룬 자이트리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국에 구 지

폐를 폐기하고 새 지폐로 교환할 장소를 4000여 곳 마련했다”며 “앞으로 2주 안에 이 과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인도중앙은행(RBI)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에게 “공포에 휩싸여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인출해 현금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이트리 장관은 “며칠만 더 기다리고 전자송금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을 권장한다”며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이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런 대규모 화폐 교환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폐개혁 후 처음 며칠간은 불편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이익”이라며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렌드로 모디 인도 총리는 ‘검은 돈’으로 알려진 불법소득 환수를 정권 최대 과제로 내걸고 있다. 그는 이날 고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베나미(Benami) 부동산 등 조세회피 단속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나미는 특정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배준호 기자 baeh94@



인도 정부가 지난주 500루피와 1000루피를 폐지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아흐마다바드에서 11일(현지시간) 한 주민이 새 2000루피 지폐를 들고 보이고 있다. 아흐마다바드/AP뉴시스



수천년을 이어 온 올리브잎의 생명력과 영양 “올레아에 담았습니다”

**올레아는 올리브잎을 주원료로 만든
아주약품의 건강식품브랜드입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수천년이 넘게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생명의 나무 올리브,
미생물과 세균으로부터 올리브나무를 방어하는 천연물질
올리유리핀 성분 때문인것으로 알려졌으며,
올리브잎에는 올리브오일 보다 몸에 좋은 올리유리핀이
50배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레아는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된 올리유리핀의 과학적 효능을 바탕으로
최상급의 올리브잎만을 엄선하여
63년 역사 아주약품의 품질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olea

아주약품 올리브잎 전문 건강브랜드



삼성전자가 키운 벤처, CES ‘최고 혁신상’

정용수 대표, 올해 사내 프로그램 통해 망고슬래브 설립
모바일·PC 입력한 메모 5초 이내 출력·접착 ‘네모닉’ 개발

“머릿속 아이디어를 바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혁신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분사, 정용수(사진) 대표가 창업한 망고슬래브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국제가전전시회) ‘최고혁신상’을 받는다.

CES 2017을 주관하는 미국가전협회(CTA)는 1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이 같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혁신상은 CTA가 컴퓨터 주변기기와 가전 등 28개 부문에서 각각 복수의 ‘CES 혁신상’을 선정하고, 이 중 최고의 제품에 수여

하는 상이다.

삼성전자 출신인 정 대표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을 통해 지난 6월 스피노프(분사), 망고슬래브에 본격 뛰어들었다. C-랩은 삼성전자가 정의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말 도입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이다.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1년간 현업 부서에서 벗어나 팀 구성부터 예산 활용, 일정 관리까



망고슬래브는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작성한 아이디어를 접착식 메모 용지에 출력해주는 인쇄기기 관련 서비스 ‘네모닉’(nemonik)으로 최고 혁신상을 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 자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CES 최고혁신상은 혁신상 중에서 부문별 최고 기업에 주는 상이다. 한국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단골로 받는 상이다. 망고슬래브는 붙여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접착식 메모 용지

를 출력할 수 있는 인쇄기기 관련 서비스 ‘네모닉’(nemonik)으로 최고 혁신상을 탔다. 창업 약 5개월 만에 최고혁신상을 받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네모닉은 ‘기억을 돕는 연상기호’와 ‘메모용지’ 형상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많은 사람이 아직 접착식 메모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자주 분실하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메모 앱은 자주 손이 가지 않는다. 메모지의 아날로그와 메모 앱의 디지털의 중간을 찾는 것이 아이디어의 출발점이었다. 네모닉은 5초면 모바일이나 PC에 입력한 메모가 출력되고 바로 책상 앞에 붙이면 된다. 메모지를 분실하면 저장한 내용을 또 뽑으면 된다.

한편, 네모닉은 내년 1월 CES 행사장에서 일반에게 공개된다. 네모닉은 상반기 중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삼성가 자산 34조4400억
2년째 아시아 최고 부호에

삼성가(家)가 2년째 아시아 최고 부호 가문 자리를 유지했다.

포브스 아시아는 최소 3대째 사업을 이어가는 아시아 가문 중 50대 부호를 선정한 결과, 삼성가가 자산 29% 달러(약 34조4400억 원)로 아시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가문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1위 자리를 유지한 삼성가의 자산은 작년 266억 달러보다 30억 달러(약 3조4905억 원)가량이 더 늘었다.

고 이병철 전 회장이 1938년 대구에서 작은 무역회사로 창업한 삼성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과 TV 제조업체로 성장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이어 범(汎) 삼성가는 1990년대 삼성과 CJ, 신세계, 한솔로 분할돼 현재 2~3세가 경영하며, 전자를 비롯해 소매, 식료품, 엔터테인먼트, 제지 등을 팔아 연간 340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설명했다.

범 현대기도 자산 145억 달러(16조 8700억 원)로 12위에 올랐다. 현대가의 자산 절반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외아들 정인식 부회장 휘하에 있었다.

정유현 기자 yhssoo@

북태평양해양과학기술의
박철 총남대학교 교수 선출

해양수산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북태평양해양과학기술(PICES) 연차총회 집행이사회에서 박철(사진) 총남대 교수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총회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PICES는 북태평양지역 정부 간 국제해양기구다. 1992년 설립됐으며 회원국은 한국·캐나다·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총 6개국이다.

박철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해양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쳤고 미국 텍사스 A&M대 대학원에서 해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한국해양학회를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4년간 북태평양 해양과학기술기부조직을 수행했다.

박 교수는 “PICES 회원국 및 사무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의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sogood@

“나눔교육포럼 통해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최신원 회장 초대회장 선임
네트워크·플랫폼 등 구축
구체적 과제 수행할 계획

나눔교육포럼은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포럼 창립식인 ‘제1회 나눔교육포럼’에서 최 회장은 “나눔교육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 나눔교육의 장이 보다 확장되고, 나아가 나눔문화 정착의 디딤돌이 되도록 구체적 과제를 수행해가자”고 말했다.

우리나라 나눔교육의 장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하고자 설립된 나눔교육 포럼은 시민과 초·중·고등학교, 나눔교육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단체 등에 나눔교육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



나눔교육포럼 초대 회장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나눔교육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네트웍스

보와 나눔교육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나눔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일과 전국의 각 지역에서 나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기

관과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와 위정희 나눔운동국민본부 사무국장이 나눔교육의 철학과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롯데, 최전방 GOP에 ‘청춘책방’

강원도 양구 21사단에 1호점
2018년까지 15억 지원 계획

롯데는 11일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청춘책방’ 1호점 개소식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 김병주 육군 제3군단장(중장), 김일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 김혁수 21사단장(소장), 이석환 롯데정책본부 상무, 신재국 한국구세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청춘책방은 최전방 GOP, 해안 소초 등에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현장 도서관으로, 국군 장병들이 책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롯데는 지난 6월 육군본부와 ‘전방부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15억 원을 지원해 30여 개의 청춘책방을 기증할 계획이다.

이번에 오픈한 청춘책방 1호점은 컨테이너 두 동을 활용해 만든 건축물로, 도서 1000여 권이 비치된 책장과 소파, 카페 테이블 등이 있는 아늑한 휴게 공간과 개인용 독서 책상, 음악 감상존으로 구성된 공부방 공간으로 나누어 있다. 날씨가 좋을 때에는 야외 공간도 활



롯데는 11일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청춘책방’ 1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롯데케미칼 허수영 대표(현판 왼쪽)와 김병주 육군 제3군단장(중장), 신재국 한국구세군 사무총장 등이 독서카페 ‘청춘책방’ 1호점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용할 수 있도록 욕상을 만들어 테이블과 파라솔도 배치했다.

청춘책방 1호점이 설치된 21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협준한 산악지역에 있어 일 년 내내 바람과 눈 등 어려운 기상조건과 싸워야 하는 곳이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는 “청춘책방 사업은 군 장병의 인성 함양과 정서적 안정을 통해 튼튼한 국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창 앞날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춘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라며 “많은 장병들이 이 공간을 자기계발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탈리아 국가공로훈장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수여하는 친선공로훈장을 수훈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산 회장으로서는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 등을 진행한 점도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박 회장이 두 나라 문화 교류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친선공로훈장을 수훈했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야구선수 이대호, 교통사고 유자녀 멘토링

KB손해보험, 초청 토크콘서트

KB손해보험은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위해 ‘빅보이’ 이대호 선수를 초청,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대호 선수는 힘든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12일 열린 이 행사는 KB손보가 2005년부터 10년 넘게 꾸준히 추진해 온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자동차보험을 주력으로 하는 손해보험사에서 교통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KB손보가 초청한 30명의 교통사고 유자녀 외에도 KB국민은행과



이대호 선수(오른쪽)가 지난 12일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KB아트홀에서 열린 KB손해보험 주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사진제공 KB손보

KB투자증권에서 초청한 지역아동센터 내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강연이 끝난 뒤 이대호 선수는 그 자리에서 직접 사인한 야구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역대 마블 톱5 기대감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가 북미지역에서 대박 행진을 터뜨리며 역대 마블 흥행 ‘톱5’에 들 것으로 점쳐졌다.

13일(현지시간) 박스오피스 모조 등에 따르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주말에 4300만 달러(약 501억8000만 원)를 벌어들이며 2주 연속 북미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영화는 개봉 열흘 만에 북미 누적 흥행수익 1억5300만 달러(약 1785억5000만 원)를 올리며 마블의 슈퍼히어로 단독 출연 영화 중 ‘아이언맨’(2008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북미를 제외한 해외에서도 3억3960만 달러(약 3963억1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포브스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8억



달러(약 8336억 원)가 넘는 수익을 거둘 것”이라며 2014년 개봉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제치고 역대 마블 흥행 성적 5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영 기자 iijy0403@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철강화학과장 김충철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이승영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이영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홍상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김현태 △미디어정책관 박위진 △체육정책관 한민호 △체육협력관 전병국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김영수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심동섭

◆코트다 어직급(처장) 승진 △부다페스트무역관장 김승호 △프라하무역관장 이관석 △수출기업화지원실 수출촉진지원팀장 정외영 △런던무역관장 김윤태 △취리히무역관장 이두영 △파트너링지원실 파트너링전략팀장 윤주영 ◇2직급(부장) △통상지원실 개발협력팀 CSR협력PM 조상재 △함부르크무역관장 윤원철 △운영지원실 김정태 △해외프로젝트지원실 김명신 △투자유치실 김종복 △콜롬비아무역관장 김용덕 △기획조정실 기획팀 국화협력PM 박창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임용 △부사장 겸 수자원관리본부이사 김형운 △경영지원·농지관리본부이사 이종옥

◆미래에셋생명 ◇임원 전보 △방카

수령스영업부문대표 나병윤 △전략영업부문대표 강유원 △CPC부문장 강창규 △AM영업1본부장 김기식 △경인고객행복센터장 박형규 △IT지원본부장 백성식 △감사실장 김상남 △CPC본부장 차상택 △모바일비즈니스실장 서래호 △준법감시인 박준우 △CRO 홍기호 △방카수령스영업2본부장 이동준 △투자전략실장 최선경 △강서고객행복센터장 김종흙 △AM영업2본부장 권성호 △계약서비스본부장 정재식

◆세방(주) <전보> △대표이사 전무 정호철 <신임> △상무보대우 김배영

◆세방산업(주) <전보> △대표이사 전무 오익재

◆세방익스프레스(주) <승진> △대표이사 상무보 장중수

◆이앤에스글로벌(주) <전보> △대표이사 전무 정호철

◆국민일보 ◇편집국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김혜림 △스포츠레저부장 고세욱 △종합편집부 부장 이종구 ◇중고국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전정희 △중고기획부장 신창호

부음

▲하인중(전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대중(전 CJ주식회사 대표)씨 모친상, 심

수병(전 삼성중공업 임원)씨 장모상 = 13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51-610-9672

▲김범진(광주평화방송 기자)씨 부친상 = 13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10시, 062-250-4455

▲양문호(전 경희의료원 병리과 교수)씨 별세 = 13일, 경희의료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2-958-9721

▲김영훈(해피콜 대표)씨 부친상, 문성우(대우건설 상무)·김일식(진주 YMCA 사무총장)씨 장인상 = 1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40분, 02-2227-7556

▲권환석(넥스 팀장)·상현(허밍IMC 국장)·수현(CS경영전략연구소장)씨 모친상, 최혜정(레드캡 팀장)씨 시모상, 장기영(편바이크 대표)·이정호(호텔신라 상무)씨 장모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12

▲윤창호(고려대 명예교수)·정열(이화여대 교수)씨 모친상, 이공현(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씨 장모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2-3010-2236

▲김동수(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씨 장인상 = 13일, 안양 메트로병원, 발인 15일 오전, 031-443-0100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서울 25시, 夜

제6화 11월의 파비안느 ⑩

초저녁인데도 2층에 있는 강미정의 창문에서는 붉은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노랫소리 가 낮게 새어 나왔다.

정육식당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는데 순영의 모습이 보였다. 낯선 남자 3명과 앉아 있다.

“어머, 언니.”

순영은 준호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했다. 정작 이해진에게 말을 걸었다.

“웬일이니?”

“오늘부터 출근을 하잖아요.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환영식 해주신다고…”

순영이 준호가 들어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이해진을 바라봤다.

준호는 말없이 눈인사만 하고 등을 보이며 앉았다.

고기와 술을 먹는 내내 순영의 얼굴이 어르거려서 고개를 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가뜰이나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이해진 때문에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고기를 먹는 동안 마는 동 소주를 건성으로 마시고 있는데 순영이 먼저 일어섰다.

순영이 나가는 뒷모습을 슬쩍 바라보며 마시는 소주 맛이 유난히 달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10시쯤 되었을 것이다.



누군가 골목으로 난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준호는 강미정에서 마신 소주가 부족했다. 캡틴큐를 마시며 스모키의 ‘그 비를 보신 적이 있나요?(Have You Ever Seen The Rain?)’를 듣고 있었다.

전에 누군가 내게 말했어.

폭풍 전에는 고요가 있었다고….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았다.

취한 눈으로 창문을 바라보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돌리면 누군가 조심스럽게 창문 유리를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밖에도 순영이 고개를 잔뜩 움츠리고 있다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웬일이야?”

“축하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가요?”

“술 마셨어?”

“죄금?”

순영이 부끄럽게 엄지손톱으로 감지 마디를 짚으며 웃었다.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

준호는 말과 다르게 슬리퍼를 끌고 대문 앞으로 갔다.

“금방 갈 거예요.”

“축하 받고 싶어서 일부러 온 거야?”

“사실은 며칠 전부터 생각했어요. 출근 첫날 꼭 여기를 외 봐야겠다고요.”

순영의 손에는 캔맥주 두 개와 새우깡 한 봉지

가 들려 있었다.

“집에서 걱정하실 거잖아.”

“어머, 시를 쓰시는구나.”

먼저 방으로 들어간 순영이 벽에 쓰여 있는 글들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냥 낙서지 뭐.”

준호가 그답지 않게 부끄러워했다.

“아니예요. 너무 멋져요. 정말 멋져요.”

순영이 뒷짐을 지고 벽이며 천장에 쓰여 있는 낙서 같은 시들을 읽기 시작했다.

·까마귀는 달을 쪼아 먹고, 나는 캡틴큐로 간을 녹여 버리고. 까마귀와 나는 친구다.

·푸른 비가 검은 슬레이트 지붕에 내려서 창문 유리를 검게 덮어 버리면, 소설책 페이지에 검은 먼지가 스며든다.

·내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들도 이 새벽에 얼음을 깨물어 먹고 있을까?

순영이 천장에 써 놓은 가짜 바다로, 바다에 빠져들면, 나 또한 바다가 될 터.라고 쓴 글을 바라보다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세요?”

“뭐가?”

“여기 쓰여 있는 글들이 모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서 묻는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글들이야. 술 취해 쓴 낙서들이라구.”

11월 8일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정치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대지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트럼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 거였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했고 특별히 대통령 당락을 결정하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경합 주)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힐러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힐러리가 이기는 것은 물론 그 승리가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비웃고 트럼프를 승리의 무대에 서게 한 것은 ‘숨은 백인들’이었습니다. 과학적 숫자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선거 전문가들은 이들 ‘숨은 백인들’의 표심을 간과했습니다. 이들 숨은 백인들은 트럼프를 찍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했으면서도 여론조사를 거부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

다. 지금까지 트럼프 지지 세력의 주종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블루 칼러’ 백인들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 블루 칼러들은 트럼프 연설을 듣기 위해 다섯 시간, 일곱 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고 집 마당에 트럼프 사인 판을 꽂아 놓는 열성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숨은 백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학력 수준이 높은 전문직 중산층’ 백인들로, 그들의 속마음을 숨겼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인종주의자’ ‘나치 동조자’ ‘여성 차별자’ ‘성범죄자’라는 비난을 받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이것을 용인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로 인해 자신의 인격과 도덕성을 의심 받고 조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투표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힐러리는 나와야 할 사람들이 덜 나오고, 지지도 덜 했습니다. 힐러리 지지세력인 흑인, 라티노, 아시아 인, 여성 표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흑인은 92% 지지로 압도적 지지를 해 주었지만 오바마 당시만큼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라티노와 아시아 인은 70% 지지로 생각보다 지지도가 낮았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민주당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젊은 표가 제 3당으로 가거나 투표장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이밴제리컬(Evangelical), 즉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지지를 예상보다 훨씬 많이 얻었습니다. 지지율이 81%에 달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신앙심이 깊은 이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앙과는 거리가 먼 도덕성과 인격을 가진 트럼프를 지지한 주요 이유는 대법원 판사 임명 때문이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고 이제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수술자) 빙장까지 열리고 하는 마당에 힐러리가 진보적 판사를 임명하면 최후의 독이 무너지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무슬림 문제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미국은 지금



조 광 동

재미 언론인

심각한 도전입니다. 무슬림 피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려는 힐러리와는 달리 트럼프는 무슬림 이민의 일시 중단을 공언했습니다. 무슬림 이민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 백인들도 거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피난민들 가운데 IS(이슬람 국가) 동조자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자녀가 자생적인 테러리스트가 되어 미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트럼프를 당선시켜 준 백인들의 또 다른 심리는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겠다는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힐러리보다는 문제 해결을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미국이 안고 있는 큰 집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합법화될 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 기금, 의료비, 교육비, 사회보장이 엄청나게 투입되어 빚에 허덕이는 미국의 적자 재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보다 더 큰 불안은 이미 15%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9일(현지시간) 지지자들을 향해 여유로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에 달하는, 13%의 흑인 인구를 넘어선 라티노가 미국의 문화 의식을 바꾸고 정치 지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격적으로 도저히 트럼프를 찍어주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를 택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으나 말로만 끝났기에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숫자가 70%에 이르고 이들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변화를 목말라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치판을 갈아엎자’는 현상 타파 심리로 끓어올랐습니다. 힐러리가 똑똑하고 자질과 경험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힐러리는 부패한 기득권의 상징이었고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들에게는 트럼프의 인격과 도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워싱턴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에 자질이 부적합하다는 숫자가 65%에 달하는데도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트럼프의 괴팍하고 괴물적인 언행은 오히려 이러한 정치판을 바꿀 수 있

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역설 심리도 트럼프 선택에 일조했을 것입니다.

아웃사이더를 자처했던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의 기득권 정치를 흔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정책을 수행하려면 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상원과 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하는 정치적 행운을 얻었으나, 정치인의 협조를 얻는 일과 기득권 정치를 바꾸는 일은 서로가 상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최대 과제는 저질화 선 거전으로 깊어진 상처와 분열을 아물게 하고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 어 준 분노한 백인들, 침묵하는 다수와 트럼프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진 흑인, 히스패닉, 무슬림, 여성들 사이를 가르는 골이 깊습니다.

트럼프는 대외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대신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무용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등거리 정책,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중국에 대한 시장 압박 증가 정책을 주장하고 한국, 일본, 독일 등 해외 미군 주둔국에 경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불응하면 주둔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것보다 낫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

속마음을 말하지 않은 ‘숨은 백인들’

트럼프가 인격·도덕적 문제 있지만

“워싱턴 분위기 바꾸자” 투표소에

흥정하며 돈 버는 일로 살아온 사업가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치인 될 수도

반대자들도 “어쩌면 유능한 대통령?”

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당시의 이러한 발언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이것을 정책화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트럼프 자신이 소화하지 못한 즉흥적이고 일시적 발언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외 정책 기조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예측 불가 외교 정책(Unpredictable Foreign Policy)’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외 정책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바꾸고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정책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특히 북한 정책은 김정운의 태도에 따라 화해로 갈 수도 있고 강공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이상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예측 불가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 초년생인 트럼프 당선자는 그러나 흥정을 하면서 돈 버는 일로 일생을 살아온 사업가입니다. 트럼프는 모든 것을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을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를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하했던 반대자 중에는 어쩌면 트럼프는 융통성 있고 생각보다 유능한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거전에서도 보여주었지만 트럼프 철학의 요체는 이익과 승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어쩌다 싱글

PART1. 혼자 사는 삶, 다섯 가지 단상 김진 세계문학사 편집장
PART2. 혼자라도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지혜 기자
PART3. 영화 속 싱글은 김유준 영화 전문 프리랜서
PART4. 격 있는 싱글 남녀 불빛클럽 ‘난타모임’ 권지현 기자
PART5. 싱글과 예술이 마주하다 ‘행복한 싱글을 위한 Tip’ 진중훈 문화평론가
PART6. 노후에는 연금이 효자, 싱글들의 자산관리 정하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PART7. 나만의 책, 무엇을 어떻게 담을까? 김종대·박미령·성경애·강신영·최한국·장영희·박윤덕·성미향 동년기자
PART8. 싱글의 고민 ‘性 그리고 건강’ 싱글 남녀가 묻고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대표가 답하다
초고령사회와 독신 노년의 연애 이규현 (황혼의 제운) 저자

선화봉자 망나니 사람들



남은 인생을 통일과 문화기적 창달에 투신하고 싶다
이기수 예원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의 110세 프로젝트



문광부서 제2간생은 부릉부릉~ 멈추지 않는다
일흔두 살, 바이크와 함께한 유라시아 횡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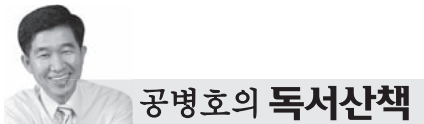
김치와 함께워야하는 맛있는 인생 이야기
“김치 없인 못 살아” 풍미식품 유정임 대표

음식평론가 황광해와 함께 떠나는 ‘음식인문학 여행’

“우리는 지금 강원도로 간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알고 나면 그 음식은 다르게 다가온다. 맛도 다르게 느껴지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음식인문학 여행’은 우리 땅, 우리 음식에 깃든 다양한 인문학적 의미들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 첫 번째로 강원도 음식을 만나려 간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리처드 돕스 외 2인 ‘미래의 속도’

“우리가 겪는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사는 것은 판단하는 일이고, 행동하는 일이며, 이때 판단과 행동은 현재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때 전망은 절대 진리가 아니면 일종의 가설이다. 가설이 맞아떨어지면 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된다. 리처드 돕스·제임스 매니카·조나단 위첼의 공저 ‘미래의 속도’는 미래에 대한 가설과 대비책을 담았다. 맥킨지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저자들은 1부에서 미래 트렌드를 그리고, 2부 6개 장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미래의 속도를 이끄는 47지 트렌드에 담겨 있다. 경제중심축의 이동을 재촉하는 신흥국의 도시화, 파괴적 혁

의 변화(에너지저장장치, 오일과 가스를 탐사하고 복구하는 첨단 기술, 재생산 가능 에너지) △IT발전과 활용범(모바일 인터넷,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지식 노동의 자동화) 등이다.

“세 번째 파괴적 메가 트렌드는 인구 변화, 인구 고령화 문제다.” 인류 역사상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의 정체 현상이 일어남과 아울러 늘어난 노인을 돌보기 위한 비용이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은퇴 이후에도 급여를 받는 일을 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답했다.

오지 않은 신세계에 적응하는 방법

신을 이끄는 힘인 기술의 속도, 모두가 늘어버린 사회인 고령화의 역설 그리고 현실이 된 나비효과, 글로벌 커넥션의 확대로 구성된 다. 우리에게 생소한 주장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과 현상을 중심으로 47지 트렌드의 실상과 특징을 생생하게 제시한다.

“첫 번째 파괴적 메가 트렌드는 경제활동과 경제 역동성의 중심지가 중국과 같은 신흥국과 신흥국의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저자의 전망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많은 대기업의 본사가 중국에 들어설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매출액 1조 달러 이상 대기업 절반 정도가 신흥국에서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파괴적 메가 트렌드는 기술의 경제적 영향력이 가속화하고 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잠재적 파괴력이 큰 12가지의 기술에 관한 정보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사물의 구성 요소 변화(자세체 유전체학, 첨단 신소재) △인간을 위해 일하는 기계(첨단 로봇, 무인 자율 자동차, 3D프린팅) △에너지에 대한 생각

“네 번째 파괴적 메가 트렌드는 우리가 흐름이라고 부르는 교역과 자본, 사람, 정보의 이동을 통해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자본의 흐름은 1980~2007년 25배나 늘었다. 2009년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이동했는데, 이는 1980년대보다 5배나 많은 수치다. 기술이 만든 연결고리 때문에 세계는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으면 이로 인하여 기회와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경험하게 됐다.

2부는 낮은 신세계에 적응하는 방법을 경제주체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동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최신편향’이나 ‘정확효과’를 과감하게 벗어나는 일이다. 두 가지는 관성의 힘을 말한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향후 5년이나 10년 안에 비슷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소적 분석가는 이를 두고 ‘과거의 패전에 얽매는 병’이라고 부른다. 일상의 익숙함을 벗어나려고 경각심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창업은 차별화다. 차별화된 진입장벽이 없는 창업은 결국 경쟁자들로 인한 핏빛 바다에서 저수익 사업을 영위하거나 침몰한다. 자영업은 물론 많은 창업벤처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 창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특허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다.

많은 창업 심사에서 선행 특허가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대부분의 창업벤처들은 특허 전략이 없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만 하면 충분하다고 착각한다. 정보 차원의 특허 수준이다. 진입장벽으로서 가치 있는 특허는 전체의 5% 미만이다. 그래서 특허 마인팅, 특허 맵과 특허 인용 분석 등 관련 특허의 분석이 창업벤처에 필수적이다. 분석 지원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과거 6개월 이상 걸리던 분석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지식’ 차원으로 발전한 특허 전략이다. 더 나아가 창업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단일 특허를 사업화 과정에서 획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특허 포트폴리오로 진화시키는 전략이 필

특허도 전략이다

요하다. 바로 ‘지능’ 차원으로 진화한 특허 전략이다.

특허 분석 결과 선행 특허가 있다고 사업을 접을 필요는 전혀 없다. 선행 특허를 저가에 매입하거나 라이선싱(특허 사용계약)할 수 있다면 오히려 최선의 대안이 된다. 매입이 어렵다면 회피 설계를 해야 한다. 특허 침해는 글로벌화 과정과 투자 단계에서 결정적인 감점 요인이 된다. 선행 특허가 없다면 현재 출원한 특허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허가 없이 사업 모델(BM: Business Model)로 출발한 창업벤처도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 사업 아이디어에 진입장벽이 될 특허로 공개된 공공 특허를 추가한다면 사업 역량이 배가될 것이다.

창업벤처의 특허 전략은 크게 창출과 보호와 활용이라는 3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창출 단계는 아이디어를 지식재산화하는 과정으로 출원과 등록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내 출원은 상대적으로 쉬우나, PCT 선출원을 거쳐 해외 각국 진입은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특허의 효율적 출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3.1과 같은 특허 품질 평가시스템은 3만 원 내외에서 국제 출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 과정을 도와준다. 이 단계에서 특허 출원비용 지원 등 다양한 특허 지원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다.

보호 단계는 소송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기업과의 협력 시에 사전 특허 출원 없이 비밀유지약정

(NDA)도 맺지 않고 사업 설명을 한다면, 대기업에 기술을 뺏겨도 제소할 수 없다. 반드시 사전 특허 출원을 하거나 NDA를 맺고 사업 설명을 해야만 한다. 시장 보호를 위해 하나의 기술 테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특허 담보를 만드는 것이 권장된다.

특허 활용은 특허 자체를 라이선싱하거나 특허를 활용한 M&A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상장(IPO)의 경우 특허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특허 매입 혹은 특허 취득용 M&A도 고려 대상이다. 페이스북은 상장 이전에 IBM, AT&T, 후지필름 등으로부터 다수의 특허를 매입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앴다. 흔히들 특허 괴물이라고 일컫는 특허 금융은 특허를 매입하고 이를 활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새로운 금융 자본으로 한국에는 ID(Intellectual Discovery)라는 대기업과 공공이 출연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특허 활용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글이 3조 원에 인수한 온도조절기 회사인 NEST는 300개에 달하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M&A는 특허가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코닥의 경우 파산 이후에도 특허 매각을 통해 거액을 회수한 바 있다.

이성과 같이 특허는 기업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 차별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 창업 생태계에 중기청과 특허청과 미래부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의 인물 11월 14일
역도산

역도산(1924.11.14~1963.12.15)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추앙받는 프로레슬링 영웅이다.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태어난 그는 탁월한 씨름 실력에 일본의 한 부농에게 양자로 들어간 뒤 스모 선수가 됐다. 역도산이라는 이름도 이때 붙은 것으로, 본명은 김신락이다.

일본인 출신이 아니면 ‘요코쓰나(横綱, 천하장사)’가 될 수 없다는 말에 좌절해 스모계를 벗어나 프로레슬러로 진로를 바꿨다. 하와이에서 맹훈련을 하고 1953년 귀국해 일본프로레슬링협회를 설립했다.

미국 프로레슬러들을 초청해 강인한 체력과 가라데춤으로 잇따라 때려눕히면

한일 양국에서 추앙받는 프로 레슬링 영웅

서 전후 좌절했던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편지 봉투에 ‘일본 역도산’이라고만 써도 그에게 전달됐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그는 ‘일본 프로레슬링의 아버지’로 불린다. 1958년 세계선수권자인 J.S.루테스를 물리치고 해비급 세계챔피언에 올랐다. 그러나 1963년 12월 도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야쿠자 청년의 칼에 찔려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6·25전쟁으로 폐쇄했던 한국에서도 서양의 거인들을 무찌르는 역도산은 영웅과 같은 존재였다. 불운한 최후를 맞았지만 제자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맹활약하

면서 프로레슬링은 1960~1970년대 전성기를 맞았다. 일본인 제자로는 무하마드 알리와 대전을 펼친 안토니오 이노키, 자이언트 바바가 있다. 한국 프로레슬링의 아버지인 김일민은 역도산의 후계자다.

파란만장한 인생에 불같은 성격이다 보니 아직도 여러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다. 일본 유도 영웅 기무라 마사히코와 1954년 대결을 펼쳤을 때 갑자기 역도산이 각본을 깨고 기무라를 거칠게 공격해 KO시켰다. 이는 지금까지도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적 선수인 재일동포 장훈과도 막역한 사이였다.

배준호 국제부 차장 baehj94@

카드로 보는 세상



지난 주말 친지나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오신 분들 많죠? 아마 요즘 대세라는 스몰웨딩(규모나 과정을 줄여 소규모로 진행하는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몰 웨딩과 함께 실용적인 커플들이 선호하는 요즘 결혼 준비 트렌드는 ‘셀프웨딩’입니다. 웨딩 촬영이나 결혼 예식장, 드레스, 부케는 물론 답례품까지 직접 준비하거나 만드는 거죠. 전문가 도움 없이도 알차게 준비하는 셀프 웨딩의 팁을 알려드립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YACMOS>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쿱**이 좋습니다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정몽진, 18.08% 최대주주...몽익·몽열 형제 계열분리 가능성

〈(주)KCC 회장〉



19 KCC

KCC는 범현대가 가운데 조용히 내실을 다져온 중견그룹사로 잘 알려져 있다. KCC 그룹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설립한 금강스레트 공업이 전신이다.

대생부터 범현대그룹과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 온 KCC그룹은 직원 7명으로 단출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현재의 KCC그룹은 7개 국내 계열사와 20여 개 해외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49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적도 지난해 3조4000억 원이 넘는 매출과 3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KCC 2세 정몽진 회장 체제 구축 = KCC그룹은 오래전부터 2세 경영체제가 확실히 굳어져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정상영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몽진 KCC 회장은 (주)KCC 지분의 18.08%를 보유해 최대 주주에 올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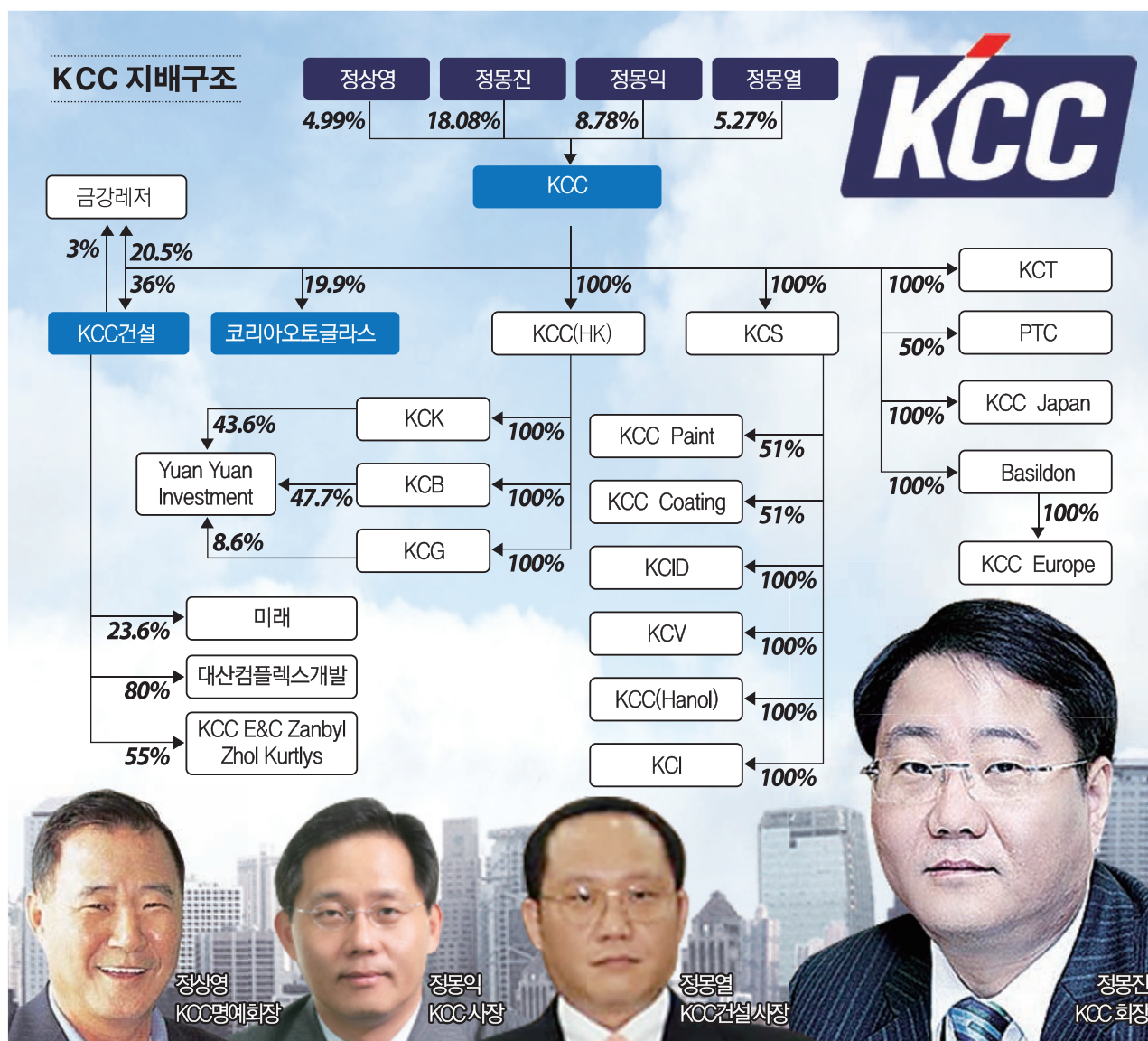
또 차남 정몽익 KCC 사장과 3남 정몽열 KCC건설 사장이 각각 지분의 8.78%와 5.27%를 보유하고 있다. 장업자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도 지분 4.99%를 보유해 대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장남 정몽진 KCC 회장이 (주)KCC의 최대주주인 것과 마찬가지로 차남과 3남 또한 그룹 내 주력 계열사들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차남인 정몽익 KCC 사장은 '코리아오토글라스(KAC)' 지분 20%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3남인 정몽열 KCC건설 사장은 (주)KCC건설 지분 24.81%로 (주)KCC 36.03%에 이어 2대 주주로 자리잡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자식들에게 골고루 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을 분배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전혀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룹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형제간 핵심 계열 지분 보유 계열분리 사전포석(?) = KCC그룹은 (주)KCC를 주축으로 KCC건설과 KAC 등이 핵심 계열사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말 KAC 상장으로 오다가 2세 3형제가 각자 상장사 하나씩을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이에 따라 형제들 간의 독자 경영 기반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향후 계열 분리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KAC 상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룹 분할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정몽익 사장은 두 형제와 달리 독자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주주에 올라선 후 분리 경영의 초석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 명예회장은 정 회장과 정몽열 사장에게 각각



정몽익 사장 최대주주인 KAC 작년말 상장

정몽열 사장은 KCC건설 24.81% 2대주주

2세 3형제 모두 상장사 하나씩 보유한 셈

계열사 지분 분산시켜 경영권 분쟁 사전 예방

3세 3명도 2006년 이후 KCC 지분 보유

KCC와 KCC건설에 대한 경영 및 지분 승계를 마친 상황이다.

특히 계열분리를 위해 정몽익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KCC 지분 8.78%와 KCC가 보유하고 있는 KAC 지분을 교환해 경영권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KAC의 경우 이미 형제 간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두고 설립된 계열사인 만큼 지난해 상장으로 계열 분리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고한 지배구조 속 3세들도 지분 획득 성공 = 정 명예회장을 비롯해 총수 네 부자가 38.83%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3세 후계구도와 관련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의 미성년자 손자 3명이 KCC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것은 2006년 2월이다. 이후 정 명예회장 세 손자의 KCC 주식 보유지분은 최근 3년 남짓한 기간에 크게 늘었다. 각각 KCC 주식을 장남 정몽진 회장의 아들 명선 군은 4만9896주(0.47%), 2남 정몽익 사장 아들 제선 군은 2만7781주(0.26%), 3남 정몽열 사장 아들 도선 군은 1만8197주(0.17%)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지분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룹 핵심인 KCC 지분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3세에 대한 지분 승계에 있어서도 2세들의 보유 지분처럼 정몽진 회장의 아들인 정명선 군이 KCC 주식을 최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자 우선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런 KCC그룹 행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3세들에 대한 경영권 승계 초석을 일찌감치 다져가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KCC 오너가 3세들의 KCC와 케이퓨처파트너스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400억 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성시종 기자 ssj@

M&A 큰손 된 KCC

車 전장·콘크리트파일 사업...

인수전 적극 나서며 외연 확대

KCC가 자동차 소재를 생산하는 쌍용머티리얼 인수전에 뛰어 들면서 인수종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범현대가인 KCC가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전 교감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인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지난해 19일 실시된 삼부건설공업 예비입찰에 참여해 동양, 일산레저 등과 경쟁을 벌이면서 기업 인수합병(M&A) 업계에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CC가 자동차 관련 사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쌍용머티리얼 인수를 추진 중이다.

쌍용머티리얼은 자동차용 모터 소재인 페라이트 마그네트(Ferrite Magnet)를 생산한다. 이 소재는 연료펌프, 브레이크 시스템 등 자동차 부품 중 100여 곳 이상에 사용된다. 특히 자동차 전장화로 해당 소재의 사용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쌍용머티리얼이 생산하는 페라이트 마그네트의 주요 납품처는 보쉬, 브로제, 발레오 등 세계적인 부품회사다.

현재 KCC는 자회사 코리아오토글라스를 통해 자동차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KCC가 쌍용머티리얼 인수를 통해 자동차용 소재

라인업을 다양화할 경우 사업 시너지는 물론 영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매각이 추진되는 쌍용머티리얼 지분은 쌍용양화가 보유한 52.2%로 적정 인수가격은 1000억~1300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쌍용머티리얼 인수전은 KCC와 스탠다드차타드 프라이빗에쿼티(SC PE) 컨소시엄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관심을 보였던 SK와 LG화학, 한화 등은 발을 뺐 상황이라 가장 덩치가 큰 이들 기업이 유력한 인수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KCC는 자회사인 코리아오토글라스를 통해 삼부토건 자회사인 삼부건설공업 매매각 분입찰에도 참여했다. 이에 따라 분입찰에 참여한 동양과 키스톤PE 등과 최종 경쟁을 벌이게 됐다.

기업화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은 부채 감축을 위해 삼부건설공업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최저입찰가는 700억~750억 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삼부건설공업은 국내 콘크리트파일 제조업체 중 시장점유율 7% 안팎으로 업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 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에 매력에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M&A 시장에서 보이지 않던 KCC가 이번 인수전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동차 전장사업과 콘크리트파일 사업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성시종 기자 ssj@

www.119medical.co.kr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즐거움 치과
Dental Clinic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남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T.032-514-00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부평동, 대한빌딩 7,8층)

“조명 꺼” 말하면 불 꺼지고 잔잔한 음악… 다 알아서 ‘꿀잠모드’

‘IoT 세상’ 스마트 싱글라이프

최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화두는 단연 ‘사물인터넷(IoT)’이다. IoT는 모든 사물에 생명(센서)을 불어넣어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간 작용하는 수많은 데이터는 스마트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30대 직장인 싱글 남녀의 일상을 통해 IoT가 이제는 미래가 아닌 현실 속 이야기임을 말해준다.

AM 7:00

스마트침대 알람에 기상… 교통·뉴스 한눈에 말만하면 원하는 음악 듣고, 실내온도 내맘대로

김소중(31) 씨는 스마트침대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을 깬다. 알람을 멈추고 창가로 다가가자 커튼이 저절로 열리고 유리창엔 날씨와 교통상황, 주요 뉴스 등이 표시된다. 인공지능(AI) 스피커가 오늘 날씨에 맞춰 감미로운 음악을 틀어주고, 김 씨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침을 먹는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세면대가 물의 온도와 양을 맞춰 스스로 물을 받아 놓는다.

= SK텔레콤이 최근 출시한 AI스피커 ‘누구’는 음성 인식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현재 이미 시판 중인 상품이다. 추후 업그레이드를 요일별로 원하는 시간에 특정 장르의 음악을 알아서 재생해 주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는 스마트폰과 연동한 IoT 상품으로 스마트기기를 통해 직접 조작할 수도 있다.

화장실에 들어서고 나서도 IoT 기술이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준다. 귀뚜라미 IoT 실내온도 조절기는 무선 공유기와 동기화 설정을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게 했다. 이 솔루션은 ‘스마트 학습 기능’이 적용돼 보일러 원격 제어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맞춤형 온도를 제공한다.

AM 7:00

스마트 밥솥으로 아침식사·설거지까지 한번에
깜박 잊은 가스밸브 잠그고, 반려견 걱정도 끝

이희수(29) 씨의 일과는 스마트 밥솥이 아침식사 시간을 알리면서 시작된다. 바쁜 출근길에 맞춤형 세척 기능의 식기세척기가 설거지하고, 옷걸이에 걸린 옷을 집어들어 스마트 거울에 비추자, 거울 위로 해당 제품을 입은 내 모습이 가상으로 나온다.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한 가스밸브를 스마트폰으로 잠그고,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사료 주기 앱을 작동시킨다.

= 지난달 LG유플러스는 생활가전업체 쿠첸과 함께 스마트밥솥을 출시했다. 밥솥과 연동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밥을 지을 수 있다. 가정 내 IoT 기기들과 연동해 구체적인 명령도 가능하다.

최근 삼성전자는 미래형 거울인 ‘미러 디스플레이’를 공개했다. 미러 디스플레이는 거울과 디스플레이로 모두 사용 가능한 미래형 거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롯데백화점 잠실점 웰빙센터에 위치한 이가자 헤어비스에 ‘미러 디스플레이’ 제품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펫스테이션(pet STATION)’이라는 반려견 IoT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펫스테이션은 앱으로 원격에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고 시간을 예약해 정해진 시간에 급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장기간 출장이나 휴가를 가게 돼 반려견을 행길 수 없는 상황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AM 8:00

자율주행차 안전벨트 매면 회사까지 알아서
충돌·차선이탈 걱정 없는 ‘베스트 드라이버’

출근 준비를 마친 김 씨는 주차장에 있는 자율주행차량에 올라탔다.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자동으로 시동이 걸린다. 차는 주변 360도를 감지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해둔 목적지인 회사까지 스스로 운행한다. 김 씨는 뒷좌석에서 오늘 할 일을 확인하고 잠깐 눈을 붙인다.

= IoT 기술 분야에서 최근 각광을 받는 것이 자율주행차량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동통신사들이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율주행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 시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인다. 운전자의 눈을 대신하는 카메라가 전방에 설치돼 있으며 차량의 앞뒤, 측면에 있는 레이더를 통해 다양한 주행 정보를 제공한다. 차량의 제어장치는 모든 정보를 계산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충돌을



방지, 차선 변경까지 통합해 제어한다. 이는 ‘조행조항보조 시스템(LKAS)’ 기술이 있기에 가능했다. LKAS는 차선이탈 경보와 차선유지 보조, 능동 조향보조 등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 조향장치가 자동으로 조절돼 원래 차선으로 자동 복귀시켜 주는 원리다.

이동통신사들은 현재 자율주행 차량 시연에 성공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차량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T맵 서비스를 발전시켜 자율주행차·전기차·커넥티드 카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KT도 자율주행 인프라, 차량 전용 콘텐츠와 앱스토어, 차량과 홈·오피스의 연동 등 미래 커넥티드 카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에는 해당 서비스를 전시회를 통해 일부 공개했다.

AM 9:00~PM 5:00

사원증 대신 스마트폰… 출퇴근도 자동기록
회의 왜 안오지?... 동료 위치 확인후 메시지

회사에 도착한 이 씨는 사원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회사 출입구를 통과한다. 이 씨의 출근 시간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회사 근무태도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스마트폰을 꺼내 동료의 위치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호출 메시지를 보낸다. 호출을 받은 동료와 함께 회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

= 회사에 출입하려고 목에 걸고 다니는 태그 방식의 사원증이 IoT 시대에는 필요 없다. Io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사원증 칩을 심어 자동으로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말 핸드소프트가 선보인 IoT 플랫폼 ‘핸디피아 2.0’은 각종 협업 SW에 IoT 기술을 접목시켰다. 근무환경 관리, 근무자 위치정보 확인, 회의실 예약 등을 쉽게 원격으로 가능케 한다. 스마트한 근태는 블루투스 비콘과 스마트 모바일 사원증의 연동을 통해 가능하다. IoT 기술을 통해 출퇴근 시 자동으로 자신의 PC나 모니터가 켜지거나 꺼진다. 비콘과 환경 센서는 회의실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는 물론, 심지어 화장실 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PM 6:00

퇴근후 주차장서 ‘엘리베이터 이리요녀라’
피부 관리사·헬스 트레이너가 내 안방으로

이 씨는 퇴근 후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주차 후 곧바로 집으로 올라간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집안의 각종 기기가 분주하게 움직인다.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아도 제습·공기청정기가 이 씨의 퇴근시간에 맞춰 적정 습도의 실내 공기를 제공한다. 이 씨는 화장대에 앉아 거울이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피부관리법이 거울 한 쪽에 뜬다. 세안을 마친 이 씨는 TV 화면을 통해 트레이너 손리에게 1대1 맞춤형 트레이닝을 받는다.

= 국내 이동사들은 다양한 생활가전업체들과 협력하며 IoT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특히 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아파트는 이미 상용화 단계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을 통해 ‘불 꺼’, ‘가스 잠가’, ‘창문 닫아’ 등을 활용해 말 한마디로 손쉽게 가전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지난 2일 목동, 평택 송당 힐스테이트 등 아파트 2000가구에 도입했다.

SK텔레콤은 내년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 2만 9000가구에 지능형 스마트홈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지능형 스마트홈은 SK텔레콤의 머신 러닝(기계학습) 기술을 적용해 거주민의 역량, 발을 습관 등을 스스로 학습하여 95% 이상의 자연어 인식률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명 꺼’라고 명령을 내리면 ‘어느 방 조명을 꺼드릴까요?’라고 대답하는 등 대화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코웨이의 경우 ‘아이오케어(IoCare)’라는 IoT기기 브랜드를 론칭하며 현재 공기청정기, 정수기, 제습기부터 비데, 매트리스까지 IoT 적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동양매직과 위닉스도 지난해부터 IoT 적용 제품들을 내놓으며 소형가전의 IoT화를 이끌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한샘, 에몬스 등 가구업체들과 함께 ‘매직미러’를 내놨다. 소비자들 거울을 보면 피부상태를 측정해 결과가 거울에 표시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피부관리법, 미용제품을 추천해준다. SK텔레콤도 리바트와 함께 가구와 화장대 거울에 터치스크린을 넣은 ‘스마트퍼니처’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홈IoT 서비스 ‘기가(GIGA) IoT 헬스밴드’를 올 초 출시하고 건강관리와 재미를 결합한 ‘헬스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용 앱에 자신의 신체 정보, 감량을 원하는 부위 등을 입력하면 올레TV에서 유명 트레이너 손리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김범근 기자 nova@



5년 만에 나온 풀체인지 '6세대'

그랜저 IG

사전계약 첫날 1만5973대 주문

'왕의 귀환'

준대형 세단 시장 지각변동 예고

'그랜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차'라는 이미지로 국내 대표 준대형 세단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 30년 동안 수차례의 변신을 거듭하며 자부심과 뿌리움을 불러일으킨 자동차이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가 2011년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6세대 모델 '그랜저 IG'의 시장 초기 반응 역시 이를 증명했다. 이달 2일 사전 계약 첫날, '그랜저 IG'는 국내 자동차 사전 계약 사상 역대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달 15일에는 '그랜저 IG'가 시장에 본격 출시되면서 국내 준대형 세단 시장의 구도를 크게 흔들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사전계약 첫날 예약 대수

※ 출처: 현대차

순위	출시연도	차종	사전계약 대수
1위	2016년	그랜저 IG	1만5973대
2위	2009년	쏘나타 YF	1만827대
3위	2014년	쏘나타 LF	7318대
4위	2010년	그랜저 HG	7115대
5위	2015년	EQ900	4324대



◇6번째 그랜저, 사전 계약부터 흥행 돌풍 = '그랜저 IG'는 사전 계약 하루 만에 1만5973대라는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전국 830여 개 영업소로 나누면, 영업소 한 곳당 19대 이상이 계약된 것이다. 기존 사전 계약 첫날 기록은 2009년 'YF 쏘나타'가 기록했던 1만827대다. '그랜저 IG'의 첫날 사전 계약 대수는 국내 준대형차급의 월평균 판매 대수 1만586대(올 1~10월 기준)를 5000대 이상 훌쩍 넘어선 수치다. '그랜저 IG'는 지난 9일까지 총 2만3220대의 계약이 이뤄졌다.

'그랜저 IG'는 2011년 이후 5년 만에 풀체인지(완전 변경)한 6세대 신차다. 정략 현대차 부사장은 "그랜저는 1986년 1세대 모델 출시 후 현대차의 혁신을 이끌어 온 국내 대표 모델"이라며 "이번 신차 출시를 통해 다시 한번 고급 준대형 세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측은 '그랜저 IG'의 초기 호조에 대해 역동적 디자인과 '현대 스마트센스' 등 동급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첨단 안전·편의사양이 고객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랜저 IG'의 파워트레인도 가솔린 2.4, 가솔린 3.0, 디젤 2.2, LPi 3.0 등 4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가솔린 2.4 모델이 3055만~3425만 원, 디젤 2.2 모델은 3355만~3725만 원, 가솔린 3.0 모델

역동적 디자인에 첨단 안전·편의사양 3000만원대 '그랜저 IG' 사전계약 돌풍 고급 준대형 세단 새 패러다임 제시

시장 목표 타깃 40대 공략 성공한 'K7' 1월 출시후 판매 1위... 그랜저와 승부 '임팔라'·'SM7'은 3위 자리 놓고 경쟁

은 3550만~3920만 원, LPi 3.0 모델은 2620만~3345만 원의 범위에서 책정됐다.

◇왕의 귀환에... 준대형 세단 시장 활기 = '그랜저 IG'의 등장으로 준대형 세단 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내수 시장에서 국내 준대형차 판매 누계 실적을 살펴보면 K7이 그랜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의 신형 'K7'은 기존 '그랜저 HG'보다 2000여 대가 더 많은 4만5825대가 판매됐다. 3위 한국지엠 '임팔라'는 1만375대로 다소 뒤처져 있고, 르노삼성차의 'SM7'은 6048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그랜저 IG'가 본격적인 판매에 돌

입하면 준대형 세단시장 1위 자리 재탈환은 시간 문제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형제 관계인 '신형 K7'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올 1월 출시한 '신형 K7'은 뛰어난 디자인과 상품성 등을 내세우며 올 들어 동급 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신형 K7'의 연령대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40대가 32%, 50대가 26%, 30대가 25%를 기록했다. 출시 당시 목표 타깃으로 삼았던 40대 공략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랜저 IG'와의 판매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전량 생산돼 국내로 들어오는 한국지엠 '임팔라'와 고객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르노삼성차의 'SM7'의 3위 경쟁도 관련 포인트다. '임팔라'의 올 1~10월 내수 시장 판매량(1만375대)은 지난해 같은 기간(3375대)보다 207.4% 급증했다. 전 모델인 '알페온'이 월 평균 300대가량 팔리던 것에 비해 판매량을 두 배 늘린 셈이다.

르노삼성차는 LPG 세단인 'SM7 LPe' 모델을 중심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이 회사는 이달 'SM7 LPe'에 총 120만 원어치 상당의 내비게이션과 18인치 알루미늄 휠을 기본 장착한 'SM7 LPe 프리미엄 컬렉션'을 출시하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안철우 기자 acw@

車업계 “연말 잡아라”... 할인 총공세

현대, 쏘나타·그랜저 HG 할인을 높여
기아, 쏘렌토 등 12개 차종 10% 혜택
한국지엠은 최대 460만원 현금 할인

작은 판매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최대 460만원의 현금 할인과 6개 차종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리만나는 쉼베레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열었다. 스파크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20만 원을 추가 할인을 해 주고 있으며, '아베오', '크루즈', '올란도', '트렉스' 등 4개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는 취득세 7%, 1년치의 자동차세를 깎아준다.

쌍용자동차도 '앵콜! 쌍용 세일 페스타'를 통해 11월 판매 차량에 대한 구매 혜택을 강화했다. '코란도C'를 일시불이나 정상품으로 사면 선착순 700명에게 등록비 7%를 전액 지원해 준다. '렉스턴W'와 '체어맨W'를 사는 고객에게는 각각 180만 원 상당의 4WD 시스템, 27만 원 상당의 4Tronic 무상 장착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자동차도 이달 'QM3'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250만 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펼친다.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70만 원 할인과 더불어 △교원·공무원·외국인·경차 보유자 50만 원 △소콜라 브라운·마린블루 색상 구매 고객 50만 원 △15년 연속 판매서비스 만족도 1위 기념 50만 원(조기출고 고객 한정) △노후차(최초 등록일 기준 5년 경과차량) 보유 고객 30만 원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70년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비타민 전문기업 고려은단 비타민을 추천합니다

DSM사의 영국산 비타민C 원료 독점계약 | QUALITY 인증마크 획득 | GMP 인증! 철저한 품질관리



“3만대 ‘임원차 특수’ 잡아라”... 車 업계 소리없는 전쟁

연말 법인수요 잡기 총력전

자동차업계가 연말 임원 인사를 앞두고 법인 수요를 잡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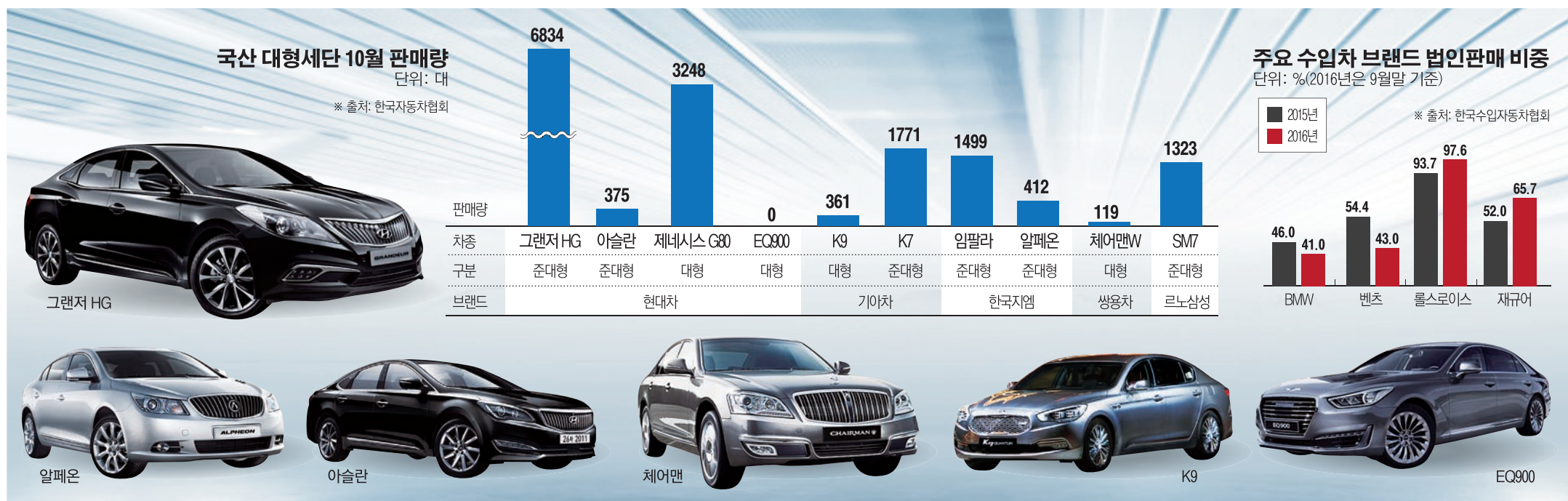
시장 점유율 60%대가 무너진 현대·기아차는 법인 스테디셀러 모델인 ‘그랜저 HG’와 ‘K7’을 통해 연말 법인 수요에 박차를 가한다. 5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고 이달 중순 출시되는 ‘그랜저 IG’ 역시 히트 카드다. 신차 흥행으로 완성차 3위에 안착한 르노삼성자동차는 사량을 대폭 끌어올린 ‘SM7 LPe 프리미엄 컬렉션’을 출시했고, 한국지엠은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는 ‘알페온’을 앞세워 그랜저 발(發) 준대형 세단 경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세 강화로 주춤했던 수입차 역시 롤스로이와 랜드로버를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시장점유율 60% 무너진 현대기아

‘그랜저 HG’ ‘K7’ 내세워 판매 박차
지난달 ‘제네시스G80’ ‘K9’ 수요 쏙

‘3위 안착’ 르노삼성 고사양 ‘SM7’
한국지엠 ‘알페온’ 준대형 시장 도전

대형 세단보다 준대형 수요 증가세
과세 강화 주춤했던 수입차도 가세



◇5대 완성차 업체, 연말 점유율 끌어 올리기 사활= 자동차업계에서는 기업 임원 차량 시장 규모가 3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상무·전무급은 준대형인 ‘그랜저’, ‘아슬란’, ‘K7’ 등을 탄다. 부사장 및 사장이 되면 ‘체어맨’과 ‘제네시스’, ‘K9’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연말 임원인사를 앞두고 자동차업계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법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K9’과 ‘체어맨W’ 같은 고가 모델부터 ‘SM7’, ‘그랜저 HG’ 등의 준대형세단까지 골고루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협회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의 ‘제

네시스 G80’의 판매량은 4876대를 기록했다. 연말을 앞두고 법인 수요가 몰리면서 전월(3500대)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아슬란’도 98대에서 240대로, 한 달 만에 판매량이 145% 급증했고, 현대차의 ‘그랜저 HG’(3268→3527대)와 르노삼성의 ‘SM7’(511→635대)도 큰 인기를 끌었다.

젊은 최고경영자(CEO)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기아차의 ‘K9’도 같은 기간 판매량이 30%(154→199대) 가까이 급증했고, 회장님 차로 더 잘 알려진 쌍용차의 ‘체어맨W’(56→66대)도 꾸준히 팔렸다. 정의선 부회장이 아십 차게 내놓은 현대차 ‘제네시스 EQ900’(976→965대)은 7월 이후 판매 상승곡선이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1000대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다.

◇과세 강화로 주춤했던 수입차 기지개= 지난해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 강화로 판매 비중이 급감했던 수입차들도 점유율 늘리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유지비와 수리비·임차료·자동차세 등을 연 1000만 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단 1000만 원이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기록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39%였던 수입차의 법인판매 비중은 올해 상반기 34%로 5%포인트 급감했다. 하지만 7월 판매 비중이 40%로 급등한 뒤 8~9

월에도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93%를 기록하던 롤스로이스의 법인 판매 비중은 지난 9월 98%로 치솟았다. 올해 판매된 42대 중 41대를 법인에서 샀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재규어 역시 52%에서 66%로 14%포인트 증가했고, 랜드로버 역시 개인 판매보다 법인 판매 비중이 6%포인트나 더 높았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과세 강화로 법인판매 비중이 주춤하긴 했지만, 운행일지 작성 규정이 허술해 편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업무용 고가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 크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수입차를 찾는 법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타보니 BMW ‘xDrive’

세바퀴 헛도는 빙판코스 5초도 안돼 탈출 ‘명품 사륜구동’

접지 바퀴에 동력분배 자갈길도 무난
급경사길엔 파워·내리막 안정성 돋보여

운전자에게 겨울은 위험 요소가 많은 계절이다. 도로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곳에 빙판길이라도 있다면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BMW그룹코리아는 이런 약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고안한 사륜구동 시스템인 ‘xDrive’의 주행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일 강원도 춘천시 소남이섬에서 열린 ‘BMW

xDrive 퍼포먼스 데이’에서 해당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시승했다. 대상 차량은 BMW X6, X5, X3 등이다.

xDrive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두 차축의 동력을 변화해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접지력을 많이 상실하는 빙판 등 극한 상황에서도 접지력이 살아있는 축으로 빠르게 동력을 분배해 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BMW그룹코리아는 이런 동력 분배로 험지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빙판 상황을 가정한 구조물 코스를 준비했다.

빙판 상황을 가정한 구조물 탈출 체험을 하기 위해 탑승한 차량은 X5이다. 구조물은 모든 바

퀴 중 세 바퀴가 헛돌도록 발판에 물러가 설치됐고, 나머지 한 바퀴만 정상적인 발판 위에 있도록 구성됐다. 실제 빙판길보다 미끄러운 이 구조물을 X5가 통과하는 데는 불과 5초도 걸리지 않았다. 접지력을 잃은 세 바퀴는 ASC(Automat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이 작동해 브레이크를 걸고, 이 동력을 모두 정상적인 발판 위에 있어 회전력이 비교적 좋은 오른쪽 뒷바퀴에 전달해 구동력을 높인 것.

급경사 코스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운전자의 시선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가파른 코스였지만, 가속 페달을 밟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느



낄 정도로 쉽게 정상에 도달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이 코스의 내리막길에서는 저속 주행장치(HDC)를 작동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일정한 속도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 이 기능은 시속 8~25km까지 설정할 수 있다.

험지와 일반도로를 넘나들며 X6의 성능을 확인했다. 도로의 상태에 따라 ‘모드’를 전환하며 주행했는데, 차량의 팔색조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일반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정된 ‘컴포트’ 모

드로 주행하다가, ‘에코’ 모드로 전환하니 차량이 한층 정숙해졌다. 길이 잘 정비되지 않은 험지에서는 ‘스포츠’와 ‘스포츠+’로 차례대로 전환해봤다. 자갈과 흙이 뒤섞인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과 코너링이 감지됐다. X6의 경우 도심에서는 중량감이 느껴지면서도, 험지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모뎀이다.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운행하기를 원하는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바이로봇
APT Shield 2.0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최순실 사태에 문재인 테마주 DRS 42.25%↑ = 지난달 말 불거진 ‘최순실 파문’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지난 주에도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지어진 종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률 1위는 DSR이었다. DSR은 한 주간 7100원에서 1만100원으로 42.25%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정치 지형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된 이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흥하종 DSR제강 대표이사사 문제인 전 대표와 같은 경남고 출신으

으며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덴버 등에서 기관차와 객차를 주주해 공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장이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잃은 가운데 이마트(15.63%) 등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라면가격 인상 가능성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점쳐지는 삼양식품(21.18%) 등이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힐러리 테마주 인디에프 한 주간 27.95% 하락 =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연관성 있는 종목이 포함됐다.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종목은 인디에프였다.

인디에프는 한 주간 3005원에서 2165원으로 전주대비 27.95% 떨어졌다. 앞서 인디에프는 모회사인 세아상역의 김웅

‘두산인프라’ ‘현대로템’ 인프라투자 수혜 기대감 급등

최순실 게이트 영향...문재인 테마株 ‘DSR’ 상승 1위

3분기 실적부진 ‘씨에스윈드’ ‘영원무역’ 등 10%대 폭

로 알려지면서 DSR은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됐다.

상승률 상위종목 가운데는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도 눈에 띄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16.71%의 상승폭을 나타낸 것.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노닐드 트럼프가 대규모 인프라투자 공약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두산바벳은 북미에서 60% 이상 매출을 올려 인프라투자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며 “두산바벳의 시장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본 59.4%를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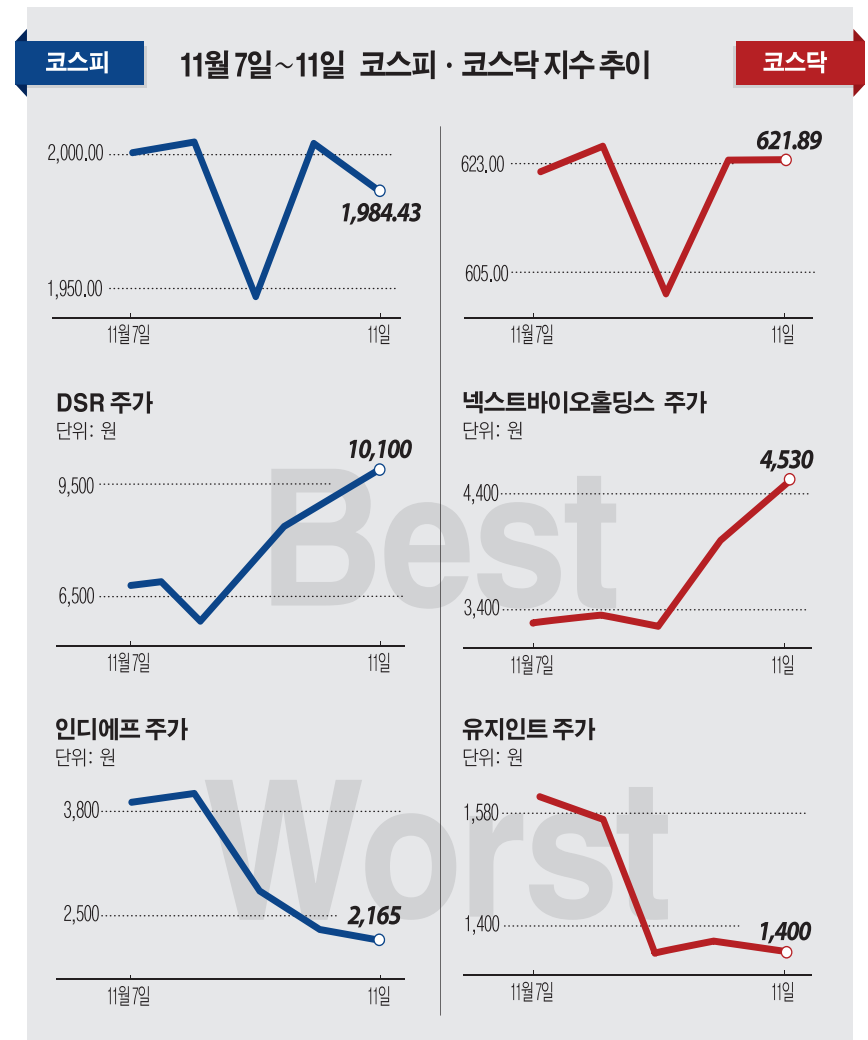
현대로템 또한 트럼프 당선 효과에 힘입어 한 주간 16.47% 올랐다. 현대로템과 관련해 정동의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그의 임기 내 1조 달러 인프라투자 공약과 관련해 현대로템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현대로템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현지생산법인을 두고 있

기 회장이 클린턴 후보와 관계가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 이후 클린턴 테마주로 분류됐다. 두 사람이 지난 2010년 대지진이 일어난 아이티에 봉사 활동에서 인연을 맺었다는 게 이유다.

아울러 힐러리 후보가 강한 의지를 보였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좌절되면서 관련 종목인 OCI가 11.69%의 낙폭을 기록했다. 전기차 테마 관련종목이었던 일진머티리얼즈 또한 한 주간 19.11% 떨어졌다.

실적 부진 종목들도 하락률 상위에 대거 포함됐다. 3분기(7~9월)에 적자를 기록한 씨에스윈드가 19.13% 떨어진 것을 비롯해 3분기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영원무역(-16.54%), 경동나비엔(13.39%) 등의 낙폭이 컸다.

이밖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동부건설(11.72%), 한세실업(12.33%), 화승엔터프라이즈(11.22%), 이노션(10.61%) 등이 하락 상위에 올랐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1월 7일 시가총액	11월 4일	11월 11일	주가등락률 (%)
DSR	161.60	7.100	10.100	42.25
성문전자	159.92	7.500	9.660	28.80
티웨이홀딩스	138.13	6.620	8.500	28.40
삼양식품	403.02	44.150	53.500	21.18
한독	347.60	23.000	27.600	20.00
두산인프라코어	1,723.95	7.120	8.310	16.71
현대로템	1,653.25	16.700	19.450	16.47
대양금속	51.12	3.575	4.150	16.08
이마트	5,157.03	160.000	185.000	15.63
동국제강	882.28	8.070	9.250	14.62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1월 7일 시가총액	11월 4일	11월 11일	주가등락률 (%)
이노션	1,230.00	68.800	61.500	-10.61
화승엔터프라이즈	351.43	14.700	13.050	-11.22
OCI	1,946.11	92.400	81.600	-11.69
동부건설	234.87	12.800	11.300	-11.72
한세실업	882.00	25.150	22.050	-12.33
경동나비엔	617.87	56.000	48.500	-13.39
영원무역	1,207.49	32.650	27.250	-16.54
일진머티리얼즈	497.84	15.700	12.700	-19.11
씨에스윈드	321.51	23.000	18.600	-19.13
인디에프	127.59	3.005	2.165	-27.95

※자료 : 에프앤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1월 7일 시가총액	11월 4일	11월 11일	주가등락률 (%)
넥스트바이오	88.76	3.225	4.530	40.47
글든센슈리	171.05	4.145	5.740	38.48
한양하이타오	44.66	1.365	1.810	32.60
양지사	104.03	4.950	6.510	31.52
한창산업	48.52	7.210	9.330	29.40
지엘팜텍	104.26	2.720	3.450	26.84
서연탐메탈	68.78	4.770	5.990	25.58
웨이포트	84.38	1.205	1.510	25.31
프럼파스트	55.46	6.060	7.560	24.75
처음엔씨	150.34	6.260	7.800	24.60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1월 7일 시가총액	11월 4일	11월 11일	주가등락률 (%)
엠에스씨	107.80	13.950	12.250	-12.19
텔론	268.41	5.280	4.620	-12.50
CSA 코스믹	79.32	4.725	4.130	-12.59
광진원텍	40.37	4.845	4.180	-13.73
대성파인텍	73.00	3.195	2.735	-14.40
잉크테크	76.51	9.580	8.200	-14.41
태웅	408.51	26.450	22.400	-15.31
엘엔에프	323.42	16.750	13.950	-16.72
동국S&C	345.14	7.730	6.040	-21.86
유지인트	171.49	1.800	1.400	-22.22

※자료 : 에프앤가이드

코스닥 시장은 ‘트럼프 쇼크’로 요동쳤다. 11일 코스닥지수는 전 주말 대비 11.07포인트(1.81%) 오른 621.89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9일 미국 대선 결과 영향으로 장중 6.8% 급락했으나 다음날 반회하며 지난 주말보다는 소폭 오르며 한 주를 마쳤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3억 원과 589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941억 원을 샀다.

◇넥스트바이오홀딩스, 트럼프 당선에 40.47% 상승 =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코스닥 상승 종목 순위도 ‘트럼프 당선’ 영향을 받았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지속되면서 야권 정치인 관련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 상승 상위종목에 포함됐다.

상승률 1위는 헬스케어, 뷰티, 신약개발 등 바이오 전문 기업인 넥스트바이오홀딩스가 차지했다. 넥스트바이오홀딩스는 한 주간 3225원에서 4530원으로 올라 40.4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넥스트바이오홀딩스가 이처럼 강세를 보인 것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노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민주당의 약가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 이란 예상에 따른 것이다.

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한창산업(29.40%), 양지사(31.52%) 등이 한 주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다.

◇힐러리 패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우수수’ = 미국 대선 영향은 추가하락 상위종목 순위에서도 확인된다. 추가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신재생에너지와 연관한 사업 종목이 많았다.

하락률 1위는 주식을 액면분할한 뒤 거래를 재개한 유지인트. 유지인트는 한 주간 1800원에서 1400원으로 22.22% 떨어졌다. 유지인트는 지난 9월 6일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주식 액면분할을 결정한 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거래가 정지됐었다. 해당 기간 동안 대내외 악재로 증시 관련 지수가

신재생에너지株 ‘동국S&C’ ‘엘엔에프’ ‘태웅’ 등 급락

‘지엘팜텍’ ‘서연탐메탈’ ‘프럼파스트’ 야권 관련株 강세

액면분할 이후 거래재개 ‘유지인트’ 22% 폭 ‘하락 1위’

트럼프 당선은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트럼프의 공약에 따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선회할 경우 국내 시장의 대(對) 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 이슈 영향도 나타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이 지속되면서 야권 대권주자의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 관련 종목으로는 지엘팜텍(+26.84%), 서연탐메탈(+25.58%) 등이 있다.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지엘팜텍은 야권 인사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련주로, 서연탐메탈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각각 분류되는 종목이다.

아울러 야권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과거 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 관련한 ‘체증시 테마주’ 프럼파스트(24.75%)도 당당

크게 하락한 것이 주가에 한 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지인트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풍력발전 관련주로 꼽히는 동국S&C는 21.86% 하락했고, 전기차테마주로 분류됐던 엘엔에프 또한 16.72% 떨어졌다. 태웅(-15.31%)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꼽히며 미 대선 기간 힐러리 후보의 우세가 점쳐질 때마다 상승 움직임을 보였던 곳이다. 태양열 관련 사업을 하는 태성파인텍도 14.40% 떨어졌다.

이밖에 잉크테크가 전주 대비 14.41% 하락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잉크테크는 한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관련주로 꼽히며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에서는 광진원텍(13.73%), CSA 코스믹(13.73%), 텔론(12.50%), 엠에스씨(12.19%) 등도 하락상위종목에 올랐다. 유충현 기자 lamuziq@

《7번 읽기 공부법》의 저자 아마구치 마유, 이번엔 ‘일하는 법’이다!

요리에 레시피가 있듯
업무에도 레시피가 필요하다!

업무의
잔기술

아마구치 마유 지음 | 김현화 옮김
176 쪽 | 한빛비즈 | 값 11,200원

도쿄대 법학부를 수석 졸업한 변호사, ‘업무의 잔기술’을 익힌 뒤에야 능력을 인정받다!
업무에 필요한 것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소소한 기술’이다!

도쿄대 법학부 수석 졸업, 재무성 관료, 변호사. 사람들은 그녀를 엘리트라 불렀지만 정작 직장에서 인정받은 것은 ‘일상 업무를 잘하게 해주는 소소한 기술’을 알게 된 후부터다!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도의 기술도, 업무 철학도 아닌 ‘구체적인 노하우의 축적’이다. ‘일이 바쁠 때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생각한다.’처럼 읽는 순간 바로 따라할 수 있고 어떤 직장에서도 완벽하게 통하는 강력한 기술을 알려준다!

문의 : 02-2128-8773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투자 불패공식

팟캐스트 경제투자 분야 1위
실전분석 투자종목 15

불곰의
주식투자
불패공식

불곰, 박선묵 지음 | 376 쪽
부키 | 값 16,000원

60개 매도 종목 평균 수익률 62%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불곰주식연구소 대표 ‘불곰’이 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투자 불패공식’.
2010년 8월에 문을 연 이래 71개월간 60개 매도종목으로 평균 수익률 62퍼센트를 달성한 불곰주식연구소의 투자 노하우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재무제표와 아이템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것을 권하는 이 책은 매일의 주가 등락에 초조해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는 여유롭고 행복한 가치투자법을 익히도록 도와준다.

문의 : 02-3142-0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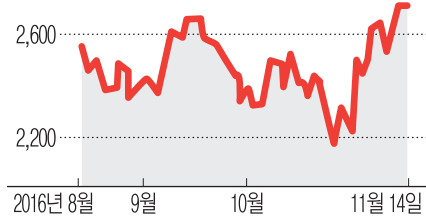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신기사 전환 제미니투자, 100억 바이오펀드 조성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미니투자 주가 추이
(단위: 원)



납입자본금 200억으로 증액... 프리IPO 등 투자영역 넓혀 바이오제약 신소재·진단시스템 투자도 외형·수익 증가 기대

벤처캐피털 제미니투자가 투자영역을 대폭 확대한다.

제미니투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로 전환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창업 투자회사로 등록됐던 제미니투자는 정부가 등록자본금 기준을 100억 원으로 낮춤에도 올해 납입자본금을 200억

원으로 증액한 후 금융당국에 신기사 등록을 신청했다.

범적으로 제한된 창업, 벤처기업에만 투자 가능한 창업투자회사가 신기사로 전환하면 벤처펀드뿐만 아니라 신기사 조립을 운영할 수 있다. 벤처투자, 메자닌, 프리IPO 등 다양한 투자영역을 포함하는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외형과 수익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제미니투자는 신기사 전환과 함께 100억 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바이오제약 신소재, 각종진료 진단시스템, 첨단 의료장비 등에 투자하고 창업 초기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국내 바이오벤처투자 전문가를 영입해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에도 투자해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올릴 계획이다. 특히, 신약연구, 개발 및 임상시험서비스 등 다양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제미니투자는 1분기(4~6월, 3월 결산법인) 대규모 흑자전환으로 턴어운드에 성공했다. 최근 해외투자기업 매니메리트엔터프라이즈(MANY MERIT ENTERPRISES)로부터 100억 원을 금융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결정한 바 있다.

제미니투자 관계자는 “대규모 흑자 전환과 자금 조달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 고성장 산업뿐 아니라 M&A펀드를 운영해 차별화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에이티젠 ‘NK뷰키트’ 美 보험 도입 추진

뉴욕 병원서 유방암 임상 진행 검사·의료비 등 환자 부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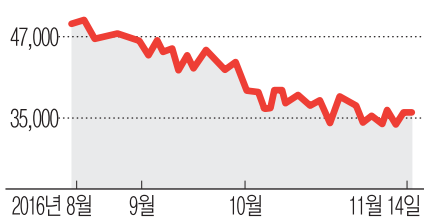
코스닥 상장사 에이티젠이 미국에서 유방암 임상을 필두로 글로벌 임상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NK뷰키트에 대해 미국 보험사와 도입을 협의 중이다.

14일 에이티젠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마운트 시나이 병원(Mount Sinai Hospital, www.mountsinai.org)에서 IRB가 통과됨에 따라 유방암에 대한 임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번 임상에서 1~4기의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시점부터 시작해 치료 시작 전 및 이후까지 NK세포의 활성도와 CTC(Circulating Tumor Cell)를 NK뷰키트와 Liquid biopsy(혈액조직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예상 임상기간은 1년이다.

에이티젠은 임상 결과가 예측한 대로 양호하게 나오는 경우 삼중음성유방암

에이티젠 주가 추이
(단위: 원)



의 발병과 재발을 진단하는 데 NK뷰키트가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이티젠은 이미 캐나다몬트리올 HMR병원에서 진행된 대장암 임상에서는 잠혈검사와 NK검사를 병행 시 NK세포의 활성도가 200(pg/ml) 이상인 경우 대장암으로부터 99%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에이티젠 관계자는 “NK뷰키트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줄여 의료비 및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 북미 의료시장에서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대장암 임상결과를 가지고 다수의 캐나다의 보험사 및 미국 LA 주정부보험사와 NK검사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립선암과 난소암 임상도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전립선암 진단 시 PSA검사에 NK검사를 결합할 경우 조직검사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임상결과가 나와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덴마크, 대만, 한국에서는 난소암 진단마커인 Cal25를 보완해 난소암 진단의 민감도(sensitivity)를 개선하는 임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에이티젠 대표는 “현재 북미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주요 암에 대한 진단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이 중 완료된 임상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i78@

진원생명과학 “지카 DNA백신, 바이러스 감염 예방”

(GLS-5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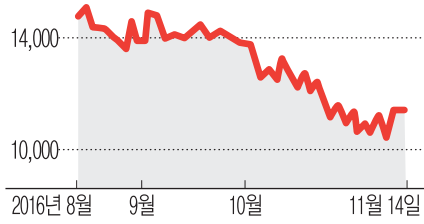
실험동물 대뇌 손상 100% 차단 연구결과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

진원생명과학이 관계사 이노비오와 공동개발 중인 지카 DNA 백신의 연구결과가 세계적 권위 학술잡지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됐다.

진원생명과학은 지카 DNA 백신(GLS-5700)의 지카 바이러스 예방과 지카 감염 후 뇌손상 및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확인했고, 그 결과를 네이처 자매지인 'npj Vaccine' 최신 호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원생명과학과 이노비오 공동개발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카 DNA 백신인 GLS-5700을 접종한 실험동물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100% 예방했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대뇌 손상이 없음을

진원생명과학 주가 추이
(단위: 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실험동물의 경우 심각한 대뇌 손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엘 매슬로 진원생명과학 최고의학책임자는 “이전 지카 백신개발 연구그룹들과는 차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감염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실험동물을 이용해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백신접종에 의한 지카 감염병의 확산의 조절 및 의학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는 “미리 준비하고 신속하게 개발을 추진한 결과, 지카 DNA 백신 개발을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1상 임상에 진입해 신속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며 “올해 안에 전체 임상 시험 대상자의 접종을 완료하고 연말에 중간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발견돼 2년 전부터 동남아시아, 남미, 중앙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집트 숲모기에 의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임신 초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의 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고, 중추신경계에 염증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혀졌다.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전무한 신종 감염병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권태성 기자 tskwon@

도 좋게 봤다”고 분석했다.

핸디소프트의 공모금액은 106억4000만 원이 될 예정이며, 공모자금은 신성장동력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및 IoT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및 운영비로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을 포함한 청약은 15~16일에 진행되며, 오는 24일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김우람 기자 hura@

공시 돋보기

시큐브, 모바일 인증기술 ‘Q인증’ 공공·금융 핀테크 서비스에 공급

악성코드 유출 후속 피해 방지 블록체인 실제 관련주로 꼽혀

클라우드 시스템 등에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인증을 적용한 ‘Q인증’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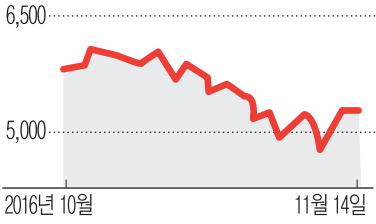
14일 보안솔루션 개발업체 시큐브는 독자적 모바일인증 기술인 ‘Q인증’을 공공·금융기관 등 5곳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Q인증’ 기술은 악성코드에 의한 SMS 탈취 공격, ARS 착신전환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QR코드’ 또는 ‘인증번호’를 받고 별도의 안전한 채널로 ‘일회용 보안랜덤값’을 받아 두 값을 연산한 결과인 ‘안전인증코드’를 전송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술이다. 특히 ‘QR코드’ 또는 ‘인증번호’가 악성코드 등에 의해 유출되어도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Q인증’ 기술은 다양한 핀테크 및 전자금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이미 GS인증 및 금융보안원 보안컨설팅을 받은 바 있어 금융뿐 아니라 공공기업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클라우드 시스템에도 구축한 시큐브는 금융 및 공공부문에서 통합계정관리관리시스템 ‘GRIFFIN’ 보안서비스를 받고 있는 다양한 서버 시스템 및 클라우드 시

시큐브 주가 추이
(단위: 원)



스템에도 ‘Q인증’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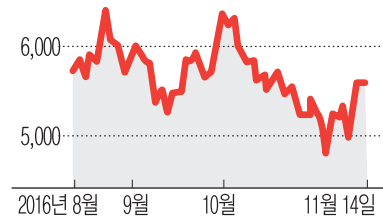
주식시장에서는 제이씨현시스템 등이 블록체인 관련주로 꼽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시큐브는 블록체인 상에서도 인증이 적용돼 실제 관련주로 꼽고 있다.

오픈베이스, 안랩, SGA 등과 함께 보안관련주로도 꼽히는 시큐브는 기존 단순 모바일 OTP를 서비스시스템 로그인에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Q인증’과 같이 보안성이 강화된 모바일인증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최초다.

‘iGRIFFIN(아이그리핀)’은 실사용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복합 인증체계(PKI, 생체정보, 스마트카드, OTP 등)를 시스템 접근에 적용하여 사용자 식별의 신뢰성을 높여, 실사용자 기반의 사용자행위감사, 실사용자 기반의 위험명령어 통제, 패스워드 노출 없는 계정권한위임 기능 등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금융·기업·국방·공공 분야에 폭넓게 도입되어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엠게임 주가 추이
(단위: 원)



AR·LBS 점목 ‘캐치몬’ 엠게임, 비공개 테스트

게임 개선·아이디어 접수 반영

엠게임은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캐치몬’이 11일 오후 3시부터 14일 오후 2시까지 4일간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캐치몬은 증강현실(AR)과 위치기반 서비스(LBS)를 접목한 모바일 게임이다. 최근 증강현실 게임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고를 비롯해 관심을 끌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접목시킨 증강현실을 통해 현실 속 다양한 지역에서 소환수를 수집하고 다른 유저들과 함께 근거리 전투를 벌이거나 보스 몬스터를 사냥하는 등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증강현실로 수집한 소환수를 카드로 활용해 카드의 능력치로 전투를 펼치거나, 건물 대신 소환수를 세우고 팬던트(주사위)를 이용해 도지를 점령한 후 많은 재산을 획득하면 승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모드의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캐치몬의 비공개 테스트에 앞서 지난달 열린 ‘코리아 VR 페스티벌 2016’에서 일반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에 출현한 소환수를 잡기 위해 화면을 직접 터치해 체력이 깎이면 카드가 되어 수집되는 방식에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환 캐치몬 기획실장은 “캐치몬은 소환수를 직접 증강현실로 수집하는 재미는 물론, 수집에 그치지 않고 이후 즐길 수 있는 많은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며 “증강현실과 위치기반서비스를 적용해 처음 시도하는 게임인 만큼 이번 테스트를 통해 유저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게임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캐치몬은 테스트 기간 동안 공식카페에 실생활에 나타난 소환수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은 후 올리거나, 게임 개선 사항 및 아이디어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우람 기자 hura@

핸디소프트, 공모가 5600원 확정... 경쟁률 262대 1

핸디소프트는 지난 7~8일 이틀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예정이 밴드 최상단인 56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은 총 319개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경쟁률 262.22대 1을 기록했다.

대표주관사 KB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들은 국내 공공시장 그룹웨어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향후 민간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사물인터넷(IoT) 선도기업으로서 커넥티드카 등 신규 사업의 성장성

SAMSUNG

숙성부터 보관까지
사계절을 아삭하게

이제는
한겨울 땅 속 같은
메탈그라운드입니다

삼성 지펠아삭 2017 NEW

모델명: RQ57K929355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메탈그라운드

한겨울 땅 속처럼 김치맛을 아삭하게 해주는 메탈쿨링커버, 메탈쿨링선반, 메탈쿨링서랍, 메탈쿨링커튼, 메탈쿨링김치통